

조선시대 咸鏡道 지역사 試論 *

-奎章閣소장 地理志자료를 중심으로 -

김 백 철 **

-
- | | |
|-------------|-------------|
| 1. 머리말 | 3. 道政의 주요현황 |
| 2. 一道의 성립과정 | 4. 맷음말 |
-

초록： 함경도는 有史이래 古土로 인식하였으나 오랫동안 온전한 영토로 삼지는 못하였다. 고려睿宗代 東北 9城을 축조한 기록이 남아있으나 영구히 지배하지는 못하였다. 북방영토는 변동성이 매우 높았다. 東界는 동해안 연안에 길게 뻗은 모습이었고 안정적으로 확보한 최전방 지역은 함경도 남부~강원도 북부 지역에 지나지 않았다. 공민왕대 쌍성총관부 공파이후 북진정책이 시행되었고, 공양왕대 이르러 비로소 一道로 독립하였고, 조선초기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온전히 장악하였다.

道政의 주요현황은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關防이다. 함경도 각 읍은 군사도시로 출발하였다. 영장, 남도오위, 북도오위 등 3개 방어권역이 설정되었다. 둘째, 교통망이다. 驛路는 남부 高山道, 중부 居山道, 북부 輸城道가 각각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하였다. 수로는 동해연안, 압록강, 두만강 유역 등에 발달하였다. 셋째, 재정운영이다. 관북의 세수는 대부분 도내 방어체계를 구성하는 순영, 남병영, 북병영, 본읍의 군비에 사용되었고, 이외에 필수 고을의 운영비에 활용되었다. 따라서 군현의 발달은 자연히 關防체계 구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民政, 交通, 財政 등이 모두 이같은 흐름 속에서 연동되었다.

핵심어 : 恭愍王, 鴨綠江, 豆滿江, 東海, 營將, 南北五衛, 關防, 陸路, 水路, 재정운영, 新定事例

* 이 논문은 2014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의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CDM-1240002).

**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사학과 조교수.

1. 머리말

함경도는 有史이래 古土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고구려, 발해, 신라 어느 곳도 온전한 영토로 삼지는 못하였다. 고려 睿宗代 東北 9城을 축조하여 北進한 기록이 남아있으나 永屬化하지는 못하였다. 거란과 여진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북방영토는 변동성이 매우 높았다. 고려전기 東界는 동해연안에 길게 뻗은 모습이었고 안정적으로 확보한 최전방 지역은 함경도남부~강원도북부에 지나지 않았다. 千里長城을 경계로 定平이남 고을은 安邊大都護府 관할하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배가 이루어졌다. 공민왕대 雙城摠管府 攻破이후 북진정책이 시행되자 千里長城이북은 咸州大都護府가 확장된 영토를 관할하였다. 공양왕대 이르러 강원도와 분리되어 비로소 一道로 독립하였다.¹⁾

조선시대 함경도는 군사적 요충지였을 뿐 아니라 왕실의 근거지였다.²⁾ 조정에서 는 북방경영을 주요하게 여겼다. 關北지역 자료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道誌類를 비롯하여 상당수 지리지와 지도가 소장되어 있으며,³⁾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도 지리지류가 보존되어 있다.⁴⁾ 이들 자료는 대개 각 시기별로 조선시대 각종 道政정보를 집대성한 성격이 짙다. 하지만 지리지의 기초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편적 활용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北道 중 평안도는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연구가 진전

1) 『新增東國輿地勝覽』第21冊, 卷48, 咸鏡道, 建置沿革〈奎貴 1932〉. ※이하 ‘奎~’/‘想白古~’/‘古~’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도서.

2) 강석화, 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 의식』, 경세원, 107-117면; 박정애, 2012, 「18-19세기 咸鏡道 王室史蹟의 시각화 양상과 의의」, 『정신문화연구』 35-1, 한국학중앙연구원, 116-155면; 윤정, 2009, 『18세기 ‘문치’사상 연구: 祖宗事蹟의 재인식과 繼志述事의 실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143-157면.

3) 1756년 『關北邑誌』〈想白古 915.19-G995〉; 1784년 『北關誌』〈古 4790-18〉·〈奎 1261〉·〈한 은391〉; 1870년 『[關北]邑誌』〈奎 667〉; 1872년 『關北邑誌』〈奎 10995〉; 1872년 『北關邑誌』〈奎 12170〉; 1894년 『關北邑誌』〈奎 12179〉.

4) 1868년 『關北邑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4215〉.

되었으며,⁵⁾ 함경도 역시 군사, 강역, 경제, 문화 분야 등 주요성과를 산출해냈다.⁶⁾ 그럼에도 함경도의 인식은 평안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개 각기 시기별 혹은 주제별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함경도 지역사 전체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은 용이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향후 후속연구자들의 심화 연구를 위한 선행작업으로 각종 지리지자료를 토대로 함경도지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먼저 함경도의 성립과정을 검토해보고, 다음으로 道政의 주요 현황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규장각소장 지리지자료가 향후 각각도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 一道의 성립과정

1) 北方의 확장

함경도는 현재 북한지역의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⁷⁾ 고려~조선전기 평안도는 古朝鮮 古土로 인식된데 비해서,⁸⁾ 함경도는 고

-
- 5) 【군사】 이철성, 2002, 「17세기 平安道 ‘江邊 7邑’의 방어체계」, 『한국사학보』 13, 고려사학회; 노영구, 2004, 「조선후기 평안도지역 內地거점방어체계」, 『한국문화』 3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정해운, 2015, 「숙종 초기 평안도의 변장증설과 방어체계의 변화」, 『사학 연구』, 한국사학회; 【경제】 권내현, 2004, 「조선후기 평안도 재정연구」, 지식산업사; 【사회】 오수창, 2002,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하명준, 2017, 『조선의 근대 전환과 평안도 연구』, 경인문화사; 【문화】 박정애, 2014, 『조선시대 평안도 함경도 실경산수화』,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은주, 2016, 『평양을 담다: 역주 평양지, 평양속지』, 소명출판.
 - 6) 【군사】 강석화, 2005, 「조선후기 함경도 육진지역의 방어체계」,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고승희, 2005, 「조선후기 함경도 내지진보의 변화」,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노영구, 2005, 「조선후기 함경남도 幹線 방어체계」,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최창국, 2013, 「조선전기 북방양계지역 『제승방략』의 실체와 현대적 합의」, 『군사연구』 136, 육군군사연구소; 【강역】 강석화, 2000, 앞 책; 【경제】 고승희, 2003, 『함경도 상업연구』, 국학자료원; 【문화】 박정애, 2014, 앞 책.
 - 7) 현재 북한지역의 도별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북측)】 安邊(안변군), 德源(원산시), 文川(문천시); 【함경남도】 高原(고원군), 永興(금야군), 定平(정평군), 咸興(함흥시),

조선 영역 밖의 역사로 치부되어 통상 고구려 古土로 언급되었다.⁹⁾ 조선후기에는 역사지리 연구가 발달하면서 道의 연혁을 훨씬 올려잡아서 肅慎國과 沃沮國까지 언급하기도 하였으며,¹⁰⁾ 남북국시대 개념이 형성되면서 발해의 南京 南海府·東京 龍原府·率賓府·顯德府 등이 추가로 제시되었다.¹¹⁾

現傳하는 각 군현의 읍지에 수록된 ‘전치연혁’은 대체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傳寫하고 조선후기 기사를 추가한 형태이다. 이에 道 전체의 연혁도 이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볼 수 있다.¹²⁾ 고려시대 道名의 연원을 살펴보면, 朔方道(995/성종14·공양왕대), 東界(947/정종2), 東北面(1095/문종9·1356/공민왕5), 沿海溟州道(1178/명종8), 江陵道(1264/원종4), 江陵朔方道(1356/공민왕5), 朔方

洪原(홍원군), 北青(북청군), 利原(이원군), 端川(단천군), 長津(장진군): 【양강도】甲山(갑산군), 三水(삼수군): 【함경북도】城津(김책시), 吉州(길주군), 明川(명천군), 鏡城(경성군), 茂山(무산군), 富寧(부령군), 慶興(경흥군), 慶源(경원군), 穩城(온성군), 鐘城(온성군), 會寧(회령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 종합정보”(<http://kyujanggak.snu.ac.kr/geo/main/main.jsp>; 2017.12.12. 검색) 참조.

- 8) 『高麗史』卷58, 志12, 地理3, 北界: 『世宗實錄』卷154, 地理志, 平安道: 『新增東國輿地勝覽』第23册, 卷51, 平安道, 建置沿革〈奎貴 1932〉.
- 9) 『高麗史』卷58, 志12, 地理3, 東界: 『世宗實錄』卷155, 地理志, 咸吉道: 『新增東國輿地勝覽』第21册, 卷48, 咸鏡道, 建置沿革〈奎貴 1932〉.
- 10) 『大東地志』卷19, 咸鏡道, 沿革〈古 4790-37〉.
- 11) 『해동역사』는 남해부를 북청에, 솔빈부를 삼수에, 『大東地志』는 솔빈부를 갑산, 현덕부를 삼수에 각각 비정하였다. 이는 현재 학계견해와 차이가 있다. 『海東繹史續集』卷9, 地理考9, 渤海: 『海東繹史續集』卷10, 地理考10, 三水府: 『大東地志』卷19, 咸鏡道, 沿革〈古 4790-37〉;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2004, 『아틀라스 한국사』, 사계절, 57면; 정석배, 2011, 「연해주발시기의 유적분포와 발해의 동북지역 영역문제」, 『고구려발해연구』40, 고구려발해학회, 114면, 116-117면, 120면.
- 12) 『신증동국여지승람』沿革의 저본을 추적해보면 『고려사』「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계승관계가 확인된다. 그 내용은 『여지도서』를 비롯한 함경도 개별 읍지에서도 대체로 계승되었다. 1차 『고려사』「지리지」‘동계’편→2차 『세종실록』「지리지」‘함길도’편→3차 『신증동국여지승람』‘함경도’‘전치연혁’→『여지도서』‘함경도’‘전치연혁’ 등의 순으로 계승관계가 확인된다. 특히 『삼국사기』「지리지」는 신라 9주를 기준으로 고구려 3주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함경남도 일부만 포함되어 북방영토의 대략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고려사』「지리지」부터 동계와 북계가 수록되었다.

江陵道(1460/공민왕9) 등으로 나타난다.¹³⁾ 고려 성종대 朔方道는 함경남도 和州 [영흥]와 강원도 濱州[강릉]로 출발한다. 이는 신라하대 朔州[춘천]와 濱州[강릉]에 비해서 다소 확장된 영역이다.¹⁴⁾ 고려 千里長城이 定平까지를 경계로 삼았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삭방은 본래 북방을 뜻하는데 신라 朔州가 춘천일대인데 비해 고려초기 朔方은 영흥까지 지칭대상이 확대되었다.

함경도 성립과정에 주요영향을 미친 사건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몇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번째 계기는 睿宗代 尹瓘 등이 약 20만의 군사를 이끌고 女眞 정벌을 단행하여 동북 9성을 축조한 사건이다.¹⁵⁾ 지리지상 명분은 여진에게 함몰된 지역의 收復戰이었다.¹⁶⁾ 일시적으로 北進한 기록이 남아있으나,¹⁷⁾ 永屬化하지는

13) 『新增東國輿地勝覽』第21冊, 卷48, 咸鏡道, 建置沿革〈奎貴 1932〉.

14) 신라의 지방행정 지도는 다음 참조.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편, 2012f, 『한국군사사11: 강역』, 경인문화사, 219면. 또 지명 고증은 대체로 漢州나 朔州에서 현재 함경남도 안변군(비열흘군, 비열주, 등주, 서곡현, 경곡현, 난산현, 석달현, 상음현, 청산현, 가지달현, 문산현, 익계현, 익곡현), 원산시(매시달현), 문천군(천정군, 탄항관문, 용주, 산산현, 송산현, 동허현, 송사달현, 유거현, 동허현) 등으로 추정된다. 『三國史記』卷37, 雜誌6, 地理4, 高句麗, 韓山州(韓州) · 牛首州(朔州) · 何瑟羅州(溟州); 정구복 외, 2012, 『역주 삼국사기4: 주석편 하』, 한국학중앙연구원, 288-292면.

15) 동북 9성은 예종 2년(1107) 12월에 1차로 英主(蒙羅骨嶺/길주), 雄州(火串山/길주), 福州(吳林金村/단천), 吉州(弓漢里村/길주), 예종 3년(1108) 2월에 2차로 咸州(함흥), 公險鎮(?), 3월에 3차로 宜州(덕원), 通泰(함흥?), 平戎(함흥?) 등을 축성하였다. 『高麗史』卷12, 世家12, 睿宗1, 丁亥 2年 12月 丙申 · 戊子 3年 2月 戊申 · 3月 庚辰; 『高麗史節要』卷7, 睿宗文孝大王1, 丁亥 2年 12月: 『高麗史節要』卷8, 睿宗文孝大王2, 戊子 3年 2月 · 3月; 『增補文獻備考』卷15, 輿地考3, 群賢沿革, 咸鏡道.

16) 대내적 명분은 肅宗 7年(1102) 女眞이 변경을 침략하여 고려백성을 학살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응징하기 위해서 숙종대부터 장기간 준비한 군사작전을 예종이 계승한 군사작전이었고, 대외적으로는 遼에는 弓漢里(길주)까지 우리의 옛영토를 회복한다고 表文을 올렸다. 『高麗史節要』卷7, 睿宗文孝大王1, 丁亥 2年 10月 壬寅 · 己丑 4年 5月.

17)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咸州이북을 여진에게 함몰된 지역으로 기술하였으며, 『고려사』는 길주전투 대패후 반환논의를 소개하였고, 『고려사절요』는 대개 吉州城[弓漢里]를 경계로 여진과 공방전 및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상세히 설명하였다. 『高麗史』卷13, 世家13, 睿宗2, 己丑 4年 5月 癸丑 · 庚申: 『高麗史節要』卷7, 睿宗文孝大王1, 己丑 4年 5月 · 7月: 『新增東國輿地勝覽』第21冊, 卷48, 咸鏡道, 建置沿革〈奎貴 1932〉.

못하고 곧 물러났다.¹⁸⁾ 거란과 여진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북방영토는 변동성이 매우 높았다. 고려전기 東界는 동해연안에 길게 뻗은 모습이었고 안정적으로 확보한 최전방 지역은 1033년(덕종2) 이후 축조된 千里長城[定平] 이남인 함경도남부~강원도북부 지역에 지나지 않았다.¹⁹⁾ 北界가 압록강 河口까지 확장된데 비해서, 동계의 북방경계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²⁰⁾

두번째 계기는 공민왕대 雙城摠管府 攻破를 들고 있다. 고려전기 실질적 지배지역은 千里長城[定平]이남이었으며, 급기야 몽골침공과 내부離叛으로 정평이남의 雙城[영흥]일대마저 상실하였다. 元의 東寧府는 忠烈王代 협상을 벌여서 平壤에서 遼瀋으로 물러나게 하였으나 雙城摠管府는 恭愍王代 비로소 武力を 동원해 격파하였다.²¹⁾ 1356년(공민왕5) 和州[영흥], 登州[안변], 定州[정평], 長州[정평], 預州[정평], 高州[고원], 文州[문천], 宜州[덕원], 宣德鎮[정평], 元興鎮[정평], 寧仁鎮[영흥], 耀德鎮[영흥], 靜邊鎮[영흥] 등을 수복하였다.²²⁾ 자리상 남에서 북으로 안

18) 학계에서 동북 9성의 최대영역은 ①함흥일대, ②길주일대, ③두만강유역 등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윤병무, 1958, 「길주성과 공험진: 공험진 입비문제의 재검토」, 『역사학보』 10, 역사학회; 송용덕, 2011, 「1107-1109년 고려의 갈라전지역 축성과 '윤관 9성'인식」, 『한국사학보』 43, 한국사학회; 권영국, 2014, 「일제시기 식민사학자의 고려시대 동북면의 국경·영토 의식」, 『사학연구』 115, 한국사학회; 윤경진, 2016, 「고려 동북 9성의 범위와 공험진 입비 문제」, 『역사와 실학』 61, 역사실학회; 이상태, 2016, 「선춘령과 공험진의 위치 고찰에 관한 연구」, 『학림』 37, 연세사학연구회; 최창국, 2017, 「선춘현과 공험진 위치 고찰: 『세종실록』『지리지』 및 고지도 답사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143, 육군군사연구소). 각 근거 기록과 시점은 차이가 있는 듯하다. ①은 고려 예종대 윤관의 千里長城 出陣을 기준으로 弓漢里村(길주)을 함흥 주위로 설정하였고, ②는 공민왕대 雙城 수복후 북청까지 진주하고 우왕대 海洋(길주)까지 석권하자 현재 길주군에 동북 9성을 비정하였으며, ③은 세종대 6진 설치후 두만강 이북 先春嶺까지 公險鎮을 확대하였다.

19) 疆域 지도는 다음 참조.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2004, 앞 책, 74면, 82면, 85면;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편, 2012f, 『한국군사사11: 강역』, 경인문화사, 263면.

20) 압록강유역 확보는 다음 참조. 송용덕, 2009, 「고려후기 변경지역 변동과 압록강 연변의식의 형성」, 『역사학보』 201, 역사학회.

21) 『高麗史』 卷30, 世家30, 忠烈王3, 庚寅 16年 3月 丁卯; 『高麗史』 卷39, 世家39, 恭愍王2, 丙申 5年 7月 丁亥.

22) 공민왕대 편입한 북방영역 지도는 다음 참조.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편, 2012f, 앞 책, 350면.

변, 덕원, 문천, 영흥, 정평, 함흥까지 편입하였다. 고려 조정은 원나라에 三撒[북청]까지 본래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北青千戶를 설치하였다.²³⁾ 이제 삭방의 개념은 공민왕대 최소 북청일대까지로 확장되었다.

그런데 원의 지배기구는 쌍성일대뿐 아니라, 그 북부[합란부·개원로]도 적·간접적인 통치대상으로 하였다. 고려군사가 압록강중류까지 장악하고 이어서 고립된 쌍성까지 공략하자 이북의 관할권도 점차 귀속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²⁴⁾ 따라서 쌍성 공파는 단지 고려 영토의 수복만이 아니라 실제로 북진을 의미하였다.²⁵⁾ 쌍성공파 이후에도 한동안 천리장성이 북은 쌍성에서 도망친 趙小生 등이 여진지역으로 패주하였다가 2차 홍건적의 난을 기화로 納哈出 등과 연계하여 함주-홍원일대를 다시 점거하는 등 저항이 적지 않았다. 공민왕후반 遼瀋공략전이 성공하자 1371년(공민왕20) 비로소 여진족 海洋萬戶가 歸附해왔고, 1382년(우왕8) 인민을 거느리고 완전히 來投하였고, 차츰 해양을 吉州로 비정하여 동북 9성의 최북단 疆域으로 정당화하였다. 이는 공민왕대 쌍성수복 당시까지 온전히 포함되지 못한 지역이다.²⁶⁾ 우왕대 길주[海洋]까지 편입되자, 공양왕대 朔方道는 강원도와 분리되어

23) 『高麗史』卷39, 世家39, 恭愍王2, 丙申 5年 10月 戊午·丁酉 6年 8月 戊午; 『高麗史』卷133, 列傳, 叛逆, 辛禡1, 丙辰 2年 12月.

24) 東寧府는 충렬왕대 폐지되었으나 공민왕대 遼瀋공략시 다시 등장하는데 일찍이 평양에서 元의 동북방 최상급기관 遼陽等處行中書省의 중심지로 폐퇴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遼寧省 開原市도 元代 開元路에서 유래했는데, 개원로는 哈蘭府[함흥]와 함께 철령이북을 관할하던 곳으로 유사한 상황이었다. 실제 설치하지 못했던 철령위 역시 마찬가지여서 조선후기 실학자 및 중국학자(遼寧省 鐵嶺市 地方志)들도 明初 鐵嶺衛가 후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3, 庚寅 16年 3月 丁卯; 『高麗史』卷42, 世家42, 恭愍王5, 庚戌 19年 正月 甲午; 『高麗史』卷137, 列傳50, 叛逆, 辛禡5, 戊辰 14年 2月 庚申; 『遼史』卷38, 志8, 地理8, 東京道, 雙州; 『金史』卷24, 志5, 地理上, 東京路, 雙城; 『元史』卷59, 志11, 地理2, 東寧路·開元路·合蘭府水達達等路; 『海東繹史續集』卷10, 地理考10, 東北界沿革; 『(康熙)鐵嶺縣志』·『(民國)鐵嶺縣志』·『(民國)鐵嶺縣志』·『(民國)鐵嶺縣續志』[2006, 『中國地方志集成: 遼寧府縣志輯 10-11冊』, 上海書店]; 김호동, 2016,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145면.

25) 이정신, 2004, 「쌍성총관부의 성립과 그 성격」 『한국사학보』 18, 고려사학회, 288면; 정요근, 2017, 「선춘령과 공험진은 두만강 이북에 있었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66, 내일을 여는 역사, 277면.

독립할 정도로 영역이 팽창하였다.

세번째 계기는 태조~세종연간 두만강유역 확보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태조의 업적으로 두만강유역 획득을 들었다. 곧 태조연간 孔州[慶源], 鏡州[鏡城], 吉州, 端州[端川], 青州[北青], 洪州[洪原],²⁷⁾ 咸州[咸興]를 두었고, 세종연간 會寧, 鐘城, 穩城, 慶興 등 4읍을 추가로 설치하였다.²⁸⁾

『고려사』에는 이미 공양왕대부터 두만강유역 여진족에게 公險鎮 관할임을 내세워 부족장 일부[斡都里·兀良哈]가 彙附한 기사가 실려있다.²⁹⁾ 이를 기반으로 태조대 두만강유역 편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태종대에도 명과 교섭과정에서 鐵嶺衛 문제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우왕대 논리를 계승하여,³⁰⁾ 공험진을 경계로 이북은 명의 요동으로, 이남은 조선의



〈그림 1〉『海東地圖』, 朝鮮女眞分界圖<古大 4709-41>의 두만강 이북 '先春嶺' · '高麗境'

- 26) 『고려사절요』와 『고려사』「세가」의 공방전과 『고려사』「지리지」는 상충되는데, 「지리지」는 마치 길주를 공민왕대 온전히 수복한 지역으로 표현하였다. 『高麗史』 卷40, 世家40, 恭愍王3, 壬寅 11年 2月 己卯·甲辰·7月·庚戌·甲辰 13年 2月 乙未; 『高麗史』 卷42, 世家42, 恭愍王5, 庚戌 19年 正月 甲午·8月 己巳·12月 丁巳; 『高麗史』 卷43, 世家43, 恭愍王6, 辛亥 20年 12月 丁未; 『高麗史』 卷134, 列傳47, 叛逆, 辛禡2, 壬戌 8年 2月 甲戌·閏2月; 『高麗史節要』 卷31, 辛禡2, 壬戌 8年 2月; 『高麗史』 卷135, 列傳48, 叛逆, 辛禡3, 癸亥 9年 7月·8月 癸未.
- 27) 洪주는 洪原의 異稱으로 보인다. 대체로 북에서 남으로 동해연안 고을을 순서대로 열거하였다.
- 28) 세종대 수복한 북방영역 및 지도는 다음 참조. 『萬機要覽』, 軍政篇5, 六鎮開拓<奎 1151>;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편, 2012f, 앞 책, 374면.
- 29) 『高麗史』 卷46, 世家46, 恭讓王2, 壬申 4年 3月 庚子.
- 30) 명은 元의 天子지위와 통치영역을 그대로 물려받고자 하였다. 이에 이미 遼陽行省에는 定遼衛을 설치하였고, 요양행성의 관할이던 雙城摠管府, 哈蘭府, 開元路 일부 등의 영역도 회수하기 위해서 鐵嶺衛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이는 고려가 단지 쌍성일대를 수복했

영토로 확정하자는 주장을 관철시켰다.³¹⁾ 더욱이 公險鎮 경계도 직접 두만강유역의 慶源이나 鏡城보다 훨씬 북쪽으로 제시하였다.³²⁾

세종대는 여진과 일대경전을 치르면서 공험진이남 경계를 명분으로 국경수호의지를 천명하였다.³³⁾ 그러면서도 공험진 '本鎮'의 위치는 여전히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였다. 『고려사』 「지리지」는 복수의 설 중 하나로 先春嶺 동남쪽 백두산 동북쪽에 公險鎮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갑자기 경원이 고려의 公險鎮防禦使를 설치한 지역이며, 이곳에서 '匡州防禦之印'을 얻었고, 두만강 이북에 高麗城 옛이름을 근거로 先春嶺일대에 公險鎮을 비정하였고,³⁴⁾ 철령부터 공험진까지 1,700리로 거리가 표시되었고, 경원에서 두만강이북까지를 구체적으로 위치를 비정하였다.³⁵⁾ 이에 두만강이북까지 고려의 군사거점이었다고 확신하였다.³⁶⁾

을 뿐 아니라 실제로 북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祚王代는 公險鎮을 내세워 고유영토이며 요동의 雙城 등 명칭이 잘못 명명되었다고 주장했다. 『高麗史』 卷137, 列傳50, 辛禕5, 戊辰 14年 2月 庚申; 『高麗史節要』 卷33, 辛禕4, 戊辰 14年 2月.

- 31) 『太宗實錄』 卷7, 太宗 4年 5月 己未(19日); 『世宗實錄』 卷59, 世宗 15年 3月 癸酉(20日).
- 32) 『太宗實錄』 卷9, 太宗 5年 5月 庚戌(16日); 『太宗實錄』 卷10, 太宗 5年 9月 壬子(20日).
- 33) 『世宗實錄』 卷32, 世宗 8年 4月 甲戌(11日); 『世宗實錄』 卷78, 世宗 19年 8月 癸亥(6日).
- 34) 하지만 중국뿐 아니라 고구려 스스로도 흔히 국호를 '고려'로 칭하므로 이 용례와 혼동한다. 그럼에도 이 기사는 조선후기 古地圖에서 '先春嶺'이나 '高麗境'을 표시하는 근거가 되었고, 심지어 『북관지』에서 公險鎮을 內外로 전제하여 경원을 內防禦所로 기록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종대 공험진 위치비정은 대체로 현재적 영토의식이 투영된 듯하다. 『高麗史』 卷58, 志12, 地理3, 公險鎮; 『世宗實錄』 卷155, 地理志, 咸吉道, 慶源都護府; 『北關志』 2册, 慶源, 建置沿革〈奎 1261〉; 『西北界圖』 第3冊, '先春嶺' · '高麗界碑去慶源'〈古 4709-89〉; 1706년 『遼薊關防地圖』, '先春嶺' · '高麗境'〈古大 4709-91〉; 1765년경 『海東地圖』 第3冊, 朝鮮女眞分界圖, '先春嶺' · '高麗境'〈古大 4709-41〉; 1776년경 『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尹文肅公碑' · '先春嶺' · '高麗境'〈古軸 4709-22A〉; 1789년경 『輿地圖』, 朝鮮女眞兩國境界圖 · 關北圖, '先春嶺' · '高麗境'〈古 4709-68〉; 1800년경 『廣輿圖』, 朝鮮女眞兩國境界圖 · 關北圖, '先春嶺' · '高麗境'〈古 4790-58〉; 18세기경 『北關遺蹟圖帖』, 拓境立碑圖, '高麗之境'(고려대학교 박물관소장).
- 35) 『世宗實錄』 卷86, 世宗 21年 8月 壬午(6日); 『世宗實錄』 卷155, 地理志, 咸吉道.
- 36) 이것은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인식과는 사뭇 다르다. 조선초기 관찰 지리지에는 한반도 영역의 통치력 재고를 위해서 직접 왕조인 고려 영토설을 적극 지지한 반면에, 조선후기 사찬 지리지에는 관심사가 요동의 고구려와 발해까지 확대되면서, 함경도일대를 굳이 고

점차 군사적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의식적으로 ‘우리영토’라고 생각하는 지역도 함께 확장되었다.

결국, 함경도 각읍의 형성 과정은 몇 차례의 영역 확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표 1〉과 같이 대부분의 고을이 숙신, 옥저, 고구려, 발해 등의 고토로 기록하여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후 북방 이민족인 여진이나 몽골에게 함몰되었다가 수복하였다는 서술구조가 공통으로 확인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肅慎國→沃沮國→고구려 古土→신라[朔州·溟州]·발해[南京 南海府·東京 龍原府·率賓府·顯德府]→고려초 1차 확장[定平]→여진 함몰→예종대 2차 확장[弓漢里村]→몽골 함몰→원간섭기[文川]→공민왕대 3차 확장[北青]³⁷⁾→공양왕대 삭방도 독립→조선 태조 대 두만강유역 확보→태종대 郡縣 설치→세종대 六鎮 건설 등의 과정을 통해 一道의 형성이 구조화되었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개창과 함경도의 탄생은 하나로 연결되는 사건이었다.³⁸⁾

〈표 1〉 함경도 각읍 형성과정

번호	읍명	유래	북방민족	高麗 州名	군현 설치 시기	비고	현재 도명
1	鏡城	고구려 /발해龍原府*	女眞점거(弓籠耳) /元함몰	(鏡州)	고려 예종/공민왕(?) 조선 태조	동북 9성 /쌍성 격파 /조선국경 확정	함북
2	慶源	x	女眞점거	孔州 /匡州	고려 예종. 조선 태조/태종 /세종	동북 9성(공험진) /육진 건설	함북

려의 영토로 주장하지 않고도 유구한 우리역사의 활동무대로 재비정하였다. 『東史綱目』, 附卷下, 地理考, 九城考·哈蘭府考; 『海東繹史續集』卷10, 地理考10, 權10, 東北界沿革; 『海東繹史續集』卷14, 地理考14, 山水2, 哈蘭河.

37) 자리지 연혁은 현재 고을을 기준으로 부회한 서술로서 위치나 시기 비정을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공민왕대 쌍성공파후 편입한 지역을 『고려사』는 三撒[북청]까지, 『고려사』 「자리지」는 海洋[길주]까지, 『신증동국여지승람』부터 鏡州[경성]까지 수복하였다고 상이하게 기록하였다. 또 공양왕대부터 두만강유역 확장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조선 태조대 군현설치를 기점으로 기술하였다. 〈표 1〉 ‘함경도 26읍 형성과정’ 참조.

38) 조선시대 함경도 疆域은 다음 참조. 『海東地圖』, 咸鏡道(古代 4709-41).

3	吉州	숙신* /옥저* /고구려 /발해*	女眞점거(弓漢里)*** /元함몰(海洋)	吉州	고려 예종/공민왕 (?) 조선 태조	동북 9성 /쌍성 격파 /조선국경 확정	함북
4	端川	고구려*	女眞점거(吳林金村) /元함몰(禿魯兀)	福州 /端州	고려 예종/공민왕. 조선 태조	동북 9성 /쌍성 격파 /조선국경 확정	함남
5	北青	고구려	女眞점거	青州	고려 예종/공민왕. 조선 태조	동북 9성 /쌍성 격파 /조선국경 확정	함남
6	咸興	옥저*/ 고구려 渤海 南海府*	漢 玄菟郡* 東女眞점거 /元함몰(哈蘭府)	咸州	고려 예종/공민왕. 조선 태조	동북 9성 /쌍성 격파 /조선국경 확정	함남
7	洪原	×	女眞점거(洪肯)	洪州	고려말 조선 태조/세종	조선국경확정 /함흥 분할	함남
8	高原	沃沮*(고구려) 德寧鎮	元함몰	高州	고려 광종/공민왕	쌍성 격파	함북
9	永興	南沃沮* /고구려長嶺鎮	元함몰	和州	고려 성종/공민왕	쌍성 격파	함남
10	定平	동옥저* /(고구려)宣威	女眞점거(巴只) /元함몰	定州 /長州	고려 광종/공민왕	쌍성 격파	함남
11	德源	고구려泉井郡	元함몰	湧州 /宜州	고려 성종/공민왕	쌍성 격파	강원
12	文川	(고구려)妹城	元함몰	文州	고려 성종/충목왕 /공민왕	쌍성 격파	강원
13	安邊	고구려 比列忽郡	元함몰	登州	고려 현종/충렬왕 /공민왕	쌍성 격파	강원
14	甲山	고구려* /발해率賓府*	女眞점거(虛川府)	甲州	고려 공양왕		양강
15	慶興	×	(女眞점거)	(孔州) (匡州)	(고려 예종) 조선 세종	육진 건설 /경원 분할	함북
16	富寧	(고구려)	(女眞점검/元함몰)	(鏡州)	(고려 예종) 조선 세종	육진 건설 /경성 분할	함북
17	穩城	고구려	女眞점거(多溫平)	×	조선 세종	육진 건설	함북
18	鍾城	고구려	女眞점거(愁州)	×	조선 세종	육진 건설 /회령 분할	함북
19	會寧	고구려	女眞점거(幹木河)	×	조선 세종	육진 건설	함북

20	利原	(고구려)時利	(女眞)점검/元함몰)	(福州) /(端州)	(고려 예종) 조선 세종	단천 분할	함남
21	三水	고구려* /별해顯德府*	(女眞)점거)	(甲州)	조선 세종	갑산 분할	양강
22	明川	(고구려)	女眞점거(弓漢里村)* /元함몰(海洋)*	(吉州)	(고려 예종) 조선 예종	길주 분할	함북
23	茂山	고구려*	胡人차지	(鏡州)	조선 숙종	부령 분할	함북
24	長津	×	×	(咸州)	조선 정조	합흥 분할	함남
25	厚州	×	×	×	조선 순조	(평안)무창 분할 평안도 이관	양강
26	城津	×	×	(吉州)	조선 고종	길주 분할	함북

- 전거: 『新增東國輿地勝覽』(奎貴 1932), 『北關志』(奎 1261), 『輿地圖書』, 『增補文獻備考』.
- *: 『大東地志』(古 4790-37), **: 『明川郡邑誌合編』(想自古 915.19-M992), ***: 『高麗史節要』
- ?: 연대기보다 연혁을 올린 경우

2) 郡縣의 計定

(1) 고을의 총수

함경도의 지리지나 고지도에 수록된 군현을 비교해보면 <표 1>과 같이 성립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여말선초 각 군현의 분할과 재배치가 잦아서 변동이 심하였다. 태조대-세종대까지 鎮堡 설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鎮이나 郡縣을 설치하고 徒民을 실시하여 거점에서 영역으로 지배력을 높여나갔다. 처음 광역단위의 鎮을 설치했다가 점차 쪼개서 하위 鎮을 늘려나갔고, 이에 따라 성곽에 백성을 늘어나면 軍政長官이 民政長官을 겸하였다. 조선초는 압록강상류와 두만강유역까지 인구밀도를 높이고 온전히 방어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함경도 22읍의 기본골격이 갖추어졌다. 여기에는 예종대는 명천이 증설된 사실이 수록되었다.³⁹⁾ 조선후기를 대변하는 『여지도서』에는 <표 2>와 같이 23읍체제가 확인된다. 숙종대 茂山都護府 설치

39) 『睿宗實錄』 卷6, 睿宗 元年 6月 辛巳(29日).

치기사가 추가되었다.⁴⁰⁾ 이는 세종대 茂山堡가 한동안 僉使鎮과 萬戶鎮 등을 번갈아 설치하였다가 승격시킨 것이다.

이후에도 군현설치는 지속되었다. 정조대는 長津都護府가 증설되었다.⁴¹⁾ 1785년(정조9) 함흥의 長津棚[별장]을 長津鎮[첨사]을 개편하고,⁴²⁾ 다시 1787년(정조11) 도호부로 승격되어 24읍 체제가 만들어졌다.⁴³⁾ 『1872년 지방지도』부터 長津이 추가되었다. 『咸鏡監營誌』에도 함흥부의 위치를 소개하면서 長津府와 경계가 표기되어 있으며,⁴⁴⁾ 『長津郡邑誌』 및 『甲山三水長津邑誌』으로 정식 읍지가 간행되었다.⁴⁵⁾ 이후 고종대 편찬된 『1872年 地方地圖』나 『北關邑誌』(奎 12170)에 변동사항이 확인된다.

순조대는 厚州都護府가 증설되었다.⁴⁶⁾ 후주는 평안도 茂昌의 厚州堡에서 유래했는데,⁴⁷⁾ 조선전기에 폐해졌다가 정조연간에 경작을 허용하여 차츰 厚州鎮을 설치하였다가 1822년(순조22)에 이르러 厚州府로 승격되었다.⁴⁸⁾ 법전자료인 『大典會通』에도 공식적으로 厚州가 반영되어 25읍으로 변모했다.⁴⁹⁾ 대한제국기 13道制가 실시되면서 함경도는 24읍으로 되돌아갔다. 후주가 후창으로 개칭되면서 평안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⁵⁰⁾

마지막으로 고종대는 城津郡이 독립하였다.⁵¹⁾ 城津은 城津堡를 1615년(광해7)에

40) 『肅宗實錄』 卷15, 肅宗 10年 3月 辛卯(25日); 『咸鏡北道茂山府邑誌』, 建置沿革(奎 17539).

41) 강석화, 2000, 앞 책, 138-151면; 고승희, 2005, 앞 논문, 366-369면.

42) 『正祖實錄』 卷20, 正祖 9年 12月 辛巳(6日).

43) 『正祖實錄』 卷24, 正祖 11年 8月 戊戌(3日).

44) 『咸鏡監營誌』, 咸興府, 鎮管<想白古 915.19-H179>.

45) 『長津郡邑誌』, 建置沿革(奎 10980); 『甲山三水長津邑誌』, 建置沿革(奎 11003).

46) 강석화, 2000, 앞 책, 152-168면; 고승희, 2005, 앞 논문, 369-370면.

47) 『世宗實錄』 卷154, 地理志, 平安道, 茂昌郡; 『世宗實錄』 卷155, 地理志, 咸吉道, 三水郡; 『新增東國輿地勝覽』 第21冊, 卷49, 咸鏡道, 三水郡(奎 1392)

48) 『正祖實錄』 卷45, 正祖 20年 11月 庚申(19日); 『純祖實錄』 卷25, 純祖 22年 12月 癸亥(23日).

49) 『大典會通』 卷1, 更典, 外官職, 咸鏡道.

50) 『承政院日記』, 同治 8年(高宗6) 11月 2日(己巳) · 29日(丙申).

51) 성진군 설치는 기준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했고, 13도제 개편시에도 확인되지 않는다.

城津鎮으로 승격시켜 첨사를 파견하고,⁵²⁾ 1701년(숙종27) 城津鎮에 다시 防禦營을 설치하여 겹하게 하였고,⁵³⁾ 13도제 실시 2년 뒤인 1898년(광무2)에 비로소 4等郡으로 삼아서 추가로 독립시켰다.⁵⁴⁾ 이로써 함경도는 최종 25읍이 재구축되었다.

〈표 2〉 각종 지리지의 ‘함경도’ 수록 고을

지리지명	수록 고을명 ()는 관할 고을	비고
『高麗史』 「地理志」‘東界’	【함경도】 안변도호부(서곡현, 문산현, 위산현, 익곡현, 파천현, 학포현, 상음현, 고주, 의주, 문주, 장주, 정주, 예주, 덕주, 영인진, 요덕진, 장평진, 용진진, 영흥진, 정변진, 운림진, 영풍진, 애수진, 진명현), <u>함주</u> 대도호부(영주, 웅주, 길주, 복주, 공현진, 통태진, 평옹진, 숭녕진, 진양진, 선화진), 【강원도】 명주(우계현, 정선현, 연곡현), 금양현(임도현, 운암현, 벽산현), 흡곡현, 고성현(환가현, 안창현), 간성현(열산현), 익령현(동산현), 삼척현, 울진현	함경 20읍 14진, /강원 18읍
『世宗實錄』 「地理志」 ‘咸吉道’	합흥부(정평도호부, 북청도호부), 영흥대도호부(고원군, 문천군, <u>예원군</u> [정평]), 안변도호부(의천군[덕원], <u>용진현</u> [문천/덕원]), 길주목(경원도호부, 단천군, 갑산군, 경성군), 회령도호부, 종성도호부, 온성도호부, 경흥도호부, 부령도호부, 삼수군	21읍 [군현 재편]
『新增東國輿地勝覽』‘咸鏡道’	합흥부, 영흥대도호부, 정평도호부, 고원군, 안변도호부, 덕원도호부, 문천군, 북청도호부, 단천군, <u>이성현</u> , <u>홍원현</u> , 갑산도호부, 삼수군, 경성도호부, 길성현, <u>명천현</u> , 경원도호부, 회령도호부, 종성도호부, 온성도호부, 경흥도호부, 부령도호부	22읍 [군현 재편]
『輿地圖書』 ‘咸鏡道’	감영*, 남병영*, 북병영*, 합흥부, 영흥대도호부, 경성도호부, 길주목, 명천도호부, 회령도호부, 정평도호부, 고원군, 안변도호부, 덕원도호부, 문천군, 북청도호부, 단천도호부, 이성현, 홍원현, 갑산도호부, 삼수도호부, 종성도호부, 온성도호부, 경원도호부, 경흥도호부, 부령도호부, <u>무산도호부</u>	23읍, 3영 [1읍 추가]

오직 지리지 및 연대기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된다.

52) 『光海君日記』卷89, 光海君 7年 4月 乙巳(29日)[中草本].

53) 『肅宗實錄』卷35, 肅宗 27年 7月 庚寅(5日).

54) 『城津郡邑誌』, 建置沿革(奎 11002).

〈표 3〉 조선시대 함경도 고을별 지도편찬 현황

지도명	소장처	수록 지도	비고
『여지도서』수록 군현지도	한국교회사 연구소	감영(함흥)*, 남병영(북청)*, 북병영(경성)*, 갑산, 경성, 경원, 경흥, 고원, 길주, 단천, 덕원, 명천, 무산, 문천, 부령, 북청, 삼수, 안변, 영흥, 온성, 이성, 정평, 종성, 함흥, 홍원, 회령	22읍, 기타3/북청 無
조선지도 (奎 16030)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갑산, 경성, 경원, 경흥, 고원, 길주, 단천, 덕원, 명천, 무산, 문천, 부령, 북청, 삼수, 안변, 영흥, 온성, 이성, 정평, 종성, 함흥, 홍원, 회령	23읍
광여도 (古 4790-58)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관북도*, 갑산, 경성, 경원, 경흥, 고원, 길주, 단천, 덕원, 마운령*, 마천령*, 명천, 무산, 문천, 부령, 북청, 삼수, 안변, 영흥, 온성, 이성, 정평, 종성, 함관령*, 함흥, 홍원, 회령	23읍, 기타4
해동지도 (古대 4709-41)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함경도*, 갑산, 경성, 경원, 경흥, 고원, 길주, 단천, 덕원, 마운령*, 마천령*, 명천, 무산, 문천, 부령, 북청, 삼수, 안변, 영흥, 온성, 이성, 정평, 종성, 함관령*, 함흥, 홍원, 회령	23읍, 기타4
여지도 (古 4709-68)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관북도*, 갑산, 경성, 경원, 경흥, 고원, 길주, 단천, 덕원, 명천, 무산, 문천, 부령, 북청, 삼수, 안변, 영흥, 온성, 이성, 정평, 종성, 함흥, 홍원, 회령	23읍, 기타1
1872년 지방지도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갑산, 경성, 경원, 경흥, 고원, 길주, 단천, 덕원, 명천, 무산, 문천, 부령, 북청, 삼수, 안변, 영흥, 온성, 이원[이성], 장진(신고), 정평, 종성, 함흥, 홍원, 회령	24읍

*: 전체지도 또는 특수지도

〈표 4〉 규장각 소장 함경도 道誌 수록 고을현황

편찬연도	읍지명	도서번호	수록 고을명	읍수
1756년	『關北邑誌』	想白古 915.19-G995	吉州, 明川, 鏡城, 富寧, 茂山, 會寧, 鐘城, 穩城, 慶源, 慶興	10읍
1784년	『北關誌』	古 4790-18, 奎 1261	鏡城, 吉州, 明川, 富寧, 會寧, 茂山, 鐘城, 穩城, 慶源, 慶興	10읍
1870년	『[關北] 邑誌』	奎 667	咸興, 洪原, 北青, 利原, 安邊, 德源, 文川, 高原, 永興, 定平, 端川, 吉州, 明川, 鏡城, 富寧, 茂山, 會寧, 鐘城, 穩城, 慶源, 慶興	21읍
1872년	『關北邑誌』	奎 10995	咸興, 洪原, 北青, 利原, 安邊, 德源, 文川, 高原, 永興, 定平, 端川, 吉州, 明川, 鏡城, 富寧, 茂山, 會寧, 鐘城, 穩城, 慶源, 慶興, 甲山, 三水, 長津	20읍
1872년	『北關邑誌』	奎 12170	咸興, 吉州, 明川, 鏡城, 富寧, 茂山, 洪原, 北青, 利原, 端川, 甲山, 三水, 長津, 會寧, 鐘城, 穩城, 慶源, 慶興, 安邊, 德源, 文川, 高原, 永興, 定平	24읍
1894년	『關北邑誌』	奎 12179	永興, 定平, 利原, 洪原, 安邊, 端川, 三水, 甲山, 長津, 北青, 文川, 高原, 德源, 咸興	14읍

(2) 군현설치 원리

각 읍의 성립과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자연지형에 따른 설치이다. 초기에는 해안 고을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⁵⁵⁾ 이것이 연안항로를 중심으로 수상 교통이 발달한 이유이기도 하다.⁵⁶⁾ 『해동지도』, 『광여도』, 『여지도』등에 실린 함경 도 지도를 살펴보면 동해연안을 중심으로 안변, 덕원, 문천, 고원, 영흥, 정평, 함흥, 홍원, 북청, 이성, 단천, 길주, 명천, 경성 등 주요 고을이 집중으로 분포되어 있다.⁵⁷⁾ 이후 연안으로부터 점차 내륙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점진적인 북진정책 과정에서 一道가 탄생하였다. 남부 고을이 해안을 끼고 수상교통의 이점을 갖고 있어 평화시에도 물류 유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던데 반해, 내륙 고을은 군사상 필요로 인해서 건설된 고을이다. 대체로 압록강 유역에는 삼수, 갑산, 장진, 후주 등이며, 두만강 유역은 무산, 부령, 회령, 종성, 온성, 경원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 백두산 이남에도 크고 작은 鎮堡가 추가로 건설되어 여러 군현의 울타리 역할을 하였다.⁵⁸⁾

둘째, 공간 구조의 분할과 재편이다. 기존 고을의 邑治를 옮기거나 재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고을이 탄생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읍치를 옮겼다가 다시 군사적 거점으로 필요해서 鎮을 재설치했다가 별도의 고을이 되거나, 기존 고을이 커지면서 屬驛이나 인근 鎮堡를 고을로 만든 경우이다. <표 1>과 같이 경흥은 경원에서,⁵⁹⁾ 부령은 경성에서,⁶⁰⁾ 종성은 회령에서,⁶¹⁾ 이원은 단천에서,⁶²⁾ 삼수는 갑산에서,⁶³⁾ 명천은 길주에서,⁶⁴⁾ 무산은 부령에서,⁶⁵⁾ 후주는 평안도 무창에서⁶⁶⁾ 장진은

55) 고승희, 2003, 앞 책, 70-73면.

56) 지리지의 '海津' 항목이 상세할 뿐 아니라 '均稅' 항목에서도 船稅가 암도적으로 나타난다.

57) 『海東地圖』, 咸鏡道<古 4709-41>; 『廣輿圖』, 關北圖<古 4790-58>; 『廣輿圖』關北圖<古 4790-58>.

58) 고승희, 2005, 앞 논문, 354-362면.

59) 『北關誌』第2冊, 慶興, 建置沿革<古 4790-18>·<奎 1261>.

60) 『北關誌』第1冊, 富寧, 建置沿革<古 4790-18>·<奎 1261>.

61) 『北關誌』第2冊, 鍾城, 建置沿革<古 4790-18>·<奎 1261>.

62) 『新增東國輿地勝覽』第21冊, 卷49, 咸鏡道, 利城縣<奎貴 1932>.

함흥에서⁶⁷⁾ 각각 분할하여 새로운 고을로 탄생하였다.

셋째, 군사도시의 성격이다. 많은 고을이 鎮堡가 먼저 설치되고 뒤에 고을이 커져서 都護府가 생기는 수순을 거쳤다. 예컨대 鏡城은 1398년(태조7) 만호가 설치되었다가 1400년(정종2) 郡으로 승격되었고 兵馬使가 郡事를 겸하다가 다시 1436년(세종18) 병마절제사로 本營으로 삼고 都護府로 승격시켰다.⁶⁸⁾ 慶興은 1428년(세종10) 孔州의 옛성을 수리하여 萬戶를 差定하였으며, 1435년(세종17) 별도로 孔州縣을 설치하고 첨절제사를 두어서 縣事를 맡겼다가 1443년(세종25) 도호부로 승격시켰다.⁶⁹⁾ 鍾城은 1424년(세종6)을 郡을 세우고 1426년(세종8) 鎮을 설치했다가 1430년(세종12) 도호부로 삼았다.⁷⁰⁾ 會寧은 1434년(세종16) 寧北鎮節制使 관할에서 분리하여 會寧鎮僉節制使가 설치되면서 都護府



〈그림 2〉『海東地圖』咸鏡道<古代 4709-41> 중
동해안 · 압록강 · 두만강유역 고을

63) 『新增東國輿地勝覽』第21册, 卷49, 咸鏡道, 三水郡<奎貴 1932>.

64) 『北關誌』第1册, 明川, 建置沿革<古 4790-18> · <奎 1261>; 『[關北]邑誌』第3册, 明川, 建置沿革<奎 667>.

65) 『[關北]邑誌』第4册, 茂山, 建置沿革<奎 667>.

66) 『世宗實錄』卷154, 地理志, 平安道, 茂昌郡; 『世宗實錄』卷155, 地理志, 咸吉道, 三水郡; 『純祖實錄』卷25, 純祖 22年 12月 癸亥(23日).

67) 『長津郡邑誌』, 建置沿革<奎 10980>; 『甲山三水長津邑誌』, 長津, 建置沿革<奎 11003>.

68) 『鏡城郡邑誌』, 建置沿革<奎 10994>.

69) 『慶興府邑誌』, 建置沿革<奎 10993>; 『慶興都護府邑誌』, 建置沿革<奎 17536>; 『[關北]邑誌』第4册, 慶興, 建置沿革<奎 667>.

70) 『鍾城郡地圖與邑誌』建置沿革<奎 10998>.

使를 겸직하였다.⁷¹⁾ 長津 역시 1667년(현종8) 長津柵堡를 세웠다가 정조연간 읍을 세우고 도호부로 승격시켰다.⁷²⁾ 茂山은 세종대 茂山堡를 숙종대 都護府로 삼았다.⁷³⁾ 洪原 역시 종6품 현감이 종6품 절제도위를 겸직하였다가 조선후기에 정3품 前營將을 겸직하였다.⁷⁴⁾ 다만, 홍원의 邑格은 고종대 4等郡으로 개편될 때까지 縣으로 유지되었다.⁷⁵⁾

넷째, 왕실 世居地의 발전이다. 조선왕실 관련 유적을 살펴보면, 본래 최북단의 慶源에 德陵(穆祖), 安陵(穆祖妃 孝恭王后)이 있었다.⁷⁶⁾ 함흥에는 앞의 두 왕릉을 옮겨왔을뿐 아니라, 義陵(度祖), 純陵(度祖妃 敬順王后), 定陵(桓祖), 和陵(桓祖妃 懿惠王后)이 있었다.⁷⁷⁾ 永興에는 璿源殿, 本宮, 太祖外祖墓, 太祖外曾祖外曾祖母兩位墓, 太祖外高祖墓, 外高祖母墓, 安邊에는 智陵(翼祖), 文川에는 淑陵(翼祖妃 貞淑王后)이 있었다.⁷⁸⁾ 특히 조선초에 왕실과 연고가 있는 고을은 읍호도 승격되었다. 경원이 덕릉과 안릉으로 인해서 도호부로 승격되었고,⁷⁹⁾ 영흥은 태조의 외조 최씨의 고향이라고 하여서 和寧에서 永興으로 읍호를 고쳤다.⁸⁰⁾ 조선시대 道名은 東北面(태조),⁸¹⁾ 永吉道(태종),⁸²⁾ 咸吉道(태종),⁸³⁾ 咸鏡道(예종·중종),⁸⁴⁾ 永安道(성종)⁸⁵⁾

71) 『世宗實錄』 卷66, 世宗 16年 10月 丁卯(24日): 『會寧郡邑誌』, 建置沿革〈奎 11001〉; 『會寧府邑誌』 建置沿革〈奎 17537〉.

72) 『長津郡邑誌』, 建置沿革〈奎 10980〉; 『甲山三水長津邑誌』, 長津, 建置沿革〈奎 11003〉.

73) 『肅宗實錄』 卷15, 肅宗 10年 3月 辛卯(25日): 『咸鏡北道茂山府邑誌』, 建置沿革〈奎 17539〉.

74) 이 때문에 文·武 堂上官[정3품]에서 堂下官[종6품]까지 파견가능한 고을로 바뀌었다. 『正祖實錄』 卷43, 正祖 19年 12月 壬寅(25日): 『[北關]邑誌』 第1冊, 洪原, 建置沿革〈奎 667〉; 『北關邑誌』 第3冊, 洪原, [建置沿革]〈奎 12170〉; 『洪原郡地圖與邑誌』, 建置沿革〈奎 10981〉; 『洪原郡邑誌』, 官職〈奎 17534〉.

75) 〈부표 7〉 '고종대 23府制와 13道制' 참조.

76) 『北關志』 2冊, 慶源, 建置沿革〈奎 1261〉.

77) 『咸鏡監營誌』, 咸鏡道咸興府地圖·咸興〈想自古 915.19-H179〉; 『關北營誌』, [監營]〈奎 12191〉.

78) 『關北邑誌』 第1冊, 永興〈奎 12179〉; 『關北邑誌』 第3冊, 安邊·文川〈奎 12179〉.

79) 『慶源府邑誌』, 建置沿革〈奎 17535〉; 『慶源郡邑誌』, 建置沿革〈奎 10996〉.

80) 『永興府邑誌』, 建置沿革〈奎 17528〉; 『永興郡邑誌』, 建置沿革〈奎 10992〉.

81) 『太祖實錄』 卷1, 太祖 元年 8月 丁巳(8日).

82) 『太宗實錄』 卷26, 太宗 13年 10月 辛酉(15일).

등으로 불렸다. 이는 거점 고을이 永興, 吉州, 咸興, 鏡城, 安邊 등이었음을 반증하며,⁸⁶⁾ 왕실유적지와도 상당부분 겹친다.

결국 함경도 최북단 두만강 유역의 확보는 이성계家門의 역량과 공민왕의 외교정책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였다. 쌍성[영흥]의 수복은 李子春[桓祖]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다.⁸⁷⁾ 수복지 주요 고을이 대부분 조선 왕실의 사적지였고 심지어 穆祖와 穆祖妃의 능은 경원에 있

었다.⁸⁸⁾ 공민왕대 북진정책은 명분상 북진정책을 내세워 북청일대를 장악하였으며, 우왕대 길주일대까지 편입하였고 공양왕대 두만강유역 쟁탈전을 시작하였다. 실제로도 최북단의 경원은 이성계집안의 연고지였기 때문에 조선초 두만강영역까지 편입하였고, 마침내 세종대 4군과 6진의 설치로 온전히 우리나라의 영토로 확립되었다.



<그림 3>『八道地圖』, 咸鏡北道<奎 10331> 중 6鎮 위치

83) 『太宗實錄』卷32, 太宗 16年 9月 丁酉(9日).

84) 『睿宗實錄』卷6, 睿宗 元年 6月 癸亥(11日); 『中宗實錄』卷1, 中宗 元年 11月 壬辰(17日). 단, 『新增東國輿地勝覽』은 중종대 이후 '함경도'로 고쳤다고 보았으나, 『睿宗實錄』부터 확인된다. 또한 『中宗實錄』의 咸境道의 '境'은 鏡城의 '鏡' 誤字인데 後代에 同音으로 더러 혼용된 듯하다.

85) 『成宗實錄』卷3, 成宗 元年 2月 丙寅(17日); 『[關北]邑誌』第1冊, 咸興, 建置沿革<奎 667>; 『[關北]邑誌』第2冊, 永興, 建置沿革<奎 667>.

86) 세종대는 함흥, 영흥, 길주, 안변이 界首官으로 명시되어 있다. 『世宗實錄』卷155, 地理志, 咸吉道.

87) 『高麗史節要』卷26, 恭愍王1, 丙申 5年 7月; 『太祖實錄』卷1, (總序), 至正 丙申(공민왕5) 5月.

88) 『北關志』2冊, 慶源, 建置沿革<奎 1261>.

3. 道政의 주요현황

1) 關防정비

(1) 중충적 防禦체계

조선시대 관방은 군사방어 全般를 지칭한다.⁸⁹⁾ 함경도는 道의 성립 자체가 군사 도시의 성장사와 다름없으므로, 주요지표 대부분은 실제로 관방의 확장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각 지리지에는 관방체계와 관련된 각종 기사가 산재해있다. 하지만 일정한 체계로 정리되어있지 않고 片鱗으로만 확인된다. 이에 법전의 자료를 통해서 지리지와 대조하여 실제 운영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최종 확립된 방어체계는 고종대 편찬된 『大典會通』에 등재되었다. 이를 참조해보면 함경도의 군사단위는 몇 가지 방어체계가 혼재되었다.

첫째, 鎮管체제이다.⁹⁰⁾ 북도의 關防은 지방통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⁹¹⁾ 세조대 鎮管 설치도 실제 北道의 軍翼道를 모범으로 삼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였다.⁹²⁾ 절도사는 兵使 3명, 水使 3명이 있지만, 觀察使가 병사와 수사를 겸하고, 다시 병사가 수사를 겸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北兵使와 南兵使가 지휘하는 두 개의 광

89) “設險固，是謂關防。凡道路拱會，嶺隘緊要，築城治兵，以備外侮，皆是物也。”『萬機要覽』，軍政篇4, 關防<奎 1151>。

90) 진관체제는 다음 참조. 민현구, 1968,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의 성립」, 『한국군제사: 근세조선 전기편』, 육군본부, 103-171면; 차문섭, 1994,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 『한국사』 23, 국사편찬위원회, 233-247면; 육군본부 육군군사연구소 편, 2012b, 『한국군사사5: 조선전기 I』, 경인문화사, 362-387면.

91) 오종록, 2014, 『여말선초 지방군제 연구』, 국학자료원; 오종록, 2014, 『조선초기 양계의 군사제도와 국방』, 국학자료원; 육군본부 육군군사연구소 편, 2012b, 앞 책; 육군본부 육군군사연구소 편, 2012c, 『한국군사사6: 조선전기 II』, 경인문화사; 육군본부 육군군사연구소 편, 2012d, 『한국군사사7: 조선후기 I』, 경인문화사; 육군본부 육군군사연구소 편, 2012e, 『한국군사사8: 조선후기 II』, 경인문화사.

92) 육군본부 육군군사연구소 편, 2012a, 『한국군사사4: 고려 II』, 경인문화사, 276-284면; 육군본부 육군군사연구소 편, 2012b, 앞 책, 328-361면; 김백철, 2016a,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조선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이학사, 430-448면.

역군사단위인 主鎮으로 구분된다. 조선초기 단일 병영체제를 유지하다가 세조연간 李施愛의 亂이 발발하여 진압하는 과정에 남병영이 증설되어 북병영[鏡城]·남병영[北青] 체제가 갖추어졌다.⁹³⁾ 아울러 북병사는 鐘城을 行營으로 두었고,⁹⁴⁾ 남병사는 甲山을 行營으로 두었다.⁹⁵⁾

절도사의 主鎮 아래에는 僉節制使가 중간 군사단위인 巨鎮을 맡는데 통상 목민관이 겸직하였다. 그런데 북도 16곳의 거진 중 8곳, 남도 9곳의 거진 중 3곳이 고을명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독자적인 鎮이다. 거진 아래에는 同僉節制使, 萬戶, 節制都尉 등이 諸鎮을 맡았다. 함경도는 영흥진관, 안변진관, 북청진관, 경성진관 등 4개 주진 및 거진이 설치되었고, 이외에는 대부분 독진으로 편성되었다.⁹⁶⁾ 동첨절제사 중에서도 고을명이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진을 맡은 경우가 북도 1곳, 남도 1곳이다. 또 萬戶는 절도사와 함께 武臣 출신만 기용하는 자리로 대개 군사적 요충지에 임명되었다. 만호는 북도 10곳, 남도 1곳이며, 수군만호도 북도에 1곳이 있었다. 절제도위는 4명 중 2자리가 副官인 判官에게 할당되었다. 따라서 기준 고을이외에 추가된 작전단위를 살펴보면, 거진 3곳, 제진 16곳이다. 남부지역이 대체로 목민관이 거진과 제진을 겸직하고 해안일대 수군지역만 전문무신이 파견된데 비해, 관북은 별도로 첨사나 만호 등을 파견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⁹⁷⁾

둘째, 南北道 五衛制이다. 중종대 삼포왜란 및 명종대 을묘왜란이후 친관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승방략체제가 도입되었다. 이 체제는 함경북도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制勝方略』에서는 함경도 6진[온성·종성·회령·부령·경원·(경성)]과 3읍[명천·길주·부령]을 묶어서 고을별로 衛將을 세워서 방어하였는데,

93) 『[關北]邑誌』第1冊, 北青, 建置沿革〈奎 667〉.

94) 『北關誌』第2冊, 鐘城, 關防〈古 4790-18〉·〈奎 1261〉.

95) 남병사의 행영은 治廢를 반복하여 상설체제는 아니었다. 『中宗實錄』卷8, 中宗 4年 4月 庚寅(29日): 『中宗實錄』卷62, 中宗 23年 8月 王子(13日); 『肅宗實錄』卷35, 肅宗 27年 2月 癸未(25日): 『海東地圖』咸鏡道〈古代 4709-41〉;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228면; 강석화, 2005, 앞 논문, 327-332면.

96) 『大東地志』卷19, 咸鏡道〈古 4790-37〉.

97) 邊地僉使는 다음 참조. 배우성, 1998, 앞 책, 220면.

실제 당시 여진 정벌전에 활용한 진법이었다.⁹⁸⁾ 관북지역의 제승방략은 기존 진관을 확장시켜 공세적 정벌전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진법이다.⁹⁹⁾

17세기 전후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동안 營將制가 관부까지 도입되었으나 영장의 지휘 아래 먼 고을의 백성은 赴防을 꺼려했을 뿐 아니라 방어 상으로도 용이하지 않았다.¹⁰⁰⁾ 현종대 會寧이북 5읍 방어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¹⁰¹⁾ 숙종대부터 5위제가 연대기에서 확인된다.¹⁰²⁾ 『만기요람』에는 金錫胄가 北路五衛復設事議를 올려서 5위제를 정비한 내력이 실려있다.¹⁰³⁾ 『北關志』에는 함경북도 10읍만 수록했는데,¹⁰⁴⁾ 모두 남북도 5위로 재편되는 고을이다. 모두 숙종대 5위가 정립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에 함경북도는 獨鎮으로 자기 고을을 방어하도록 하고, 5읍씩 묶어서 편성하는 五衛체제로 재정립되었고,¹⁰⁵⁾ 『대전회통』에는 정3품 衛將을 북도 5위와 남도 5위에 각 前衛, 左衛, 中衛, 右衛, 後衛 5위에 임명한다고 규정하였다.¹⁰⁶⁾ 모두 목민관이 겸직하는 자리이다.

셋째, 營將制이다. 16세기에 鎮管體制가 붕괴되어 兩亂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

98) 『宣祖實錄』卷125, 宣祖 33年 5月 庚戌(8日); 『宣祖實錄』卷134, 宣祖 34年 2月 甲申(15日); 『制勝方略』卷1-2, 列鎮防禦〈奎孤 132〉; 『制勝方略』卷2, 六鎮大分軍·三邑分官〈奎孤 132〉; 〈부표 1〉 참조.

99) 최창국, 2013, 앞 논문, 169-174면.

100) 『肅宗實錄』卷12, 肅宗 7年 9月 辛未(22日). 함경남도는 진관제로 거진 및 제진이 있고 영장제로도 인근 고을에서 속오군을 차출하여 집결시키는 방식인데 반해, 함경북도 남북 5위는 모두 獨鎮이므로 인근 鎮堡정도만 결집했던 점이 주요한 차이였을 듯하다. 단, 조선후기 '獨鎮' 개념은 휘하 진보가 있더라도 고을이 없으면 모두 해당된다.

101) 『顯宗改修實錄』卷13, 顯宗 6年 5月 丙午(21日).

102) 『肅宗實錄』卷12, 肅宗 7年 9月 辛未(22日).

103) 『萬機要覽』, 軍政篇1, 五衛, 附北道衛制〈奎 1151〉.

104) 『북관지』에는 1693년(숙종19) 申汝哲 및 李三錫의 跋에는 광해 8년 李植가 北評事때 底本을 쓰고 현종 5년 아들 李端夏가 다시 북평사가 되어 마무리했다고 한다. 『光海君日記』卷102, 光海 8年 4月 己未(20日)[中草本]; 『顯宗實錄』卷8, 顯宗 5年 閏6月 甲申(24日); 『顯宗實錄』卷12, 顯宗 7年 5月 癸卯(23日); 『北關志』1冊~2冊〈奎 1261〉.

105) 강석화, 2005, 앞 논문, 308-309면.

106) 북도 5위는 會寧이북이며, 남도 5위는 茂山이남이다. 『[關北]邑誌』第3冊, 鏡城, 官員〈奎 667〉; 『萬機要覽』, 軍政篇1, 五衛, 附北道衛制〈奎 1151〉.

였다. 17세기에는 새로운 지방군체가 대두하였다. 전후복구 차원에서 추진된 營將制 역시 상당부분 기존 진관체제를 원용하여 복구하였다.¹⁰⁷⁾ 진관제하에서 무신은 절도사와 만호정도에 그쳤고 목민관이 겸직하여 내지의 전쟁수행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에 종3품 침절제사가 파견되는 중간단위인 巨鎮을 재편하여 정3품 무신은 營將으로 파견하여 상시 지휘하는 체계가 나타났다. 함경남도에 前營, 後營, 中營, 左營, 右營, 別中營 등을 설치하여 영장제가 도입되었다.¹⁰⁸⁾ 다만, 함경북도에 남북 오위제가 운영되어 他道처럼 진관의 巨鎮과 鎮營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다. 특히 鎮營은 남북오위와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품계도 비슷해서 실제로 15개 군사거점이 권역별로 관북을 방어하는 형세를 이루었다.

넷째, 기타제도이다. 우선 防禦營이다.¹⁰⁹⁾ 종2품 방어사가 별도로 파견되었다. 진영장이 정3품인데 반해, 방어사는 절도사와 동급이다. 조선초 吉州에 설치되었다가,¹¹⁰⁾ 숙종대 城津僉使가 겸직하였다. 다음으로, 討捕營이다. 함경남도는 영장제에 따라 진영장이 겸직하였고,¹¹¹⁾ 함경북도는 명천, 회령, 경원 등의 목민관이 겸직하였다.¹¹²⁾ 아울러 群小 鎮堡가 존재한다. 權官은 북도 7곳, 남도 7곳, 별장이 남도 2

- 107) 영장제는 다음 참조. 서태원, 1999, 『조선후기 지방군체 연구: 영장제를 중심으로』, 혜안: 김우철, 2000, 『조선후기 지방군체사』, 경인문화사;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편, 2012d, 앞 책, 400-407면;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편, 2012e, 앞 책, 2-28면.
- 108) 단, 『대전회통』에는 6영[홍원, 갑산, 영흥, 단천, 삼수, 덕원]인데 반해, 『대동지지』에는 함경북도의 토포영을 추가하여 7영[영흥, 덕원, 홍원, 갑산, 삼수, 명천, 회령, 경원]으로 위치와 숫자가 서로 다르다. 『大典會通』卷4, 兵典, 外官職, 咸鏡道; 『[關北]邑誌』第3冊, 端川, 建置沿革(奎 667); 『大東地志』卷19, 咸鏡道(古 4790-37).
- 109) 방어영 설치배경은 다음 참조. 노영구, 2005, 앞 논문, 398-403면.
- 110) 『北關志』第1冊, 吉州, 建置沿革, 萬曆 乙巳(선조38) · 天啓 丁卯(인조5)(奎 1261); 『大東地志』卷19, 咸鏡道(古 4790-37).
- 111) 17세기 전시 대비책이었던 鎮營은 점차 평시에 討捕營을 겸직하면서, 중앙의 左·右捕盜營에 대비되어 외방의 捕盜[경찰] 임무까지 수행했다. 김백철, 2016b, 『탕평시대 볍치주의 유산: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경인문화사, 231-233면.
- 112) 『대전회통』에는 鎮營將의 討捕使를 겸직하도록 하여 함경북도 토포영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대동지지』에는 명천, 회령, 경원이 추가로 확인되며, 『[관북]읍지』에는 경성[北兵營]은 虞候가 토포사를 겸직한다고 하여서 시기별로 상이하다. 『大東地志』卷19, 咸鏡道(古 4790-37); 『[關北]邑誌』第3冊, 鏡城, 官員(奎 667).

곳에 파견되었다. 이외에 親騎衛를 설치하여 유사시를 대비한 기병의 확보에도 힘을 기울였다.¹¹³⁾

〈표 5〉 진관체계

主鎮	巨鎮	諸鎮		
兵馬節度使	僉節制使	同僉節制使	萬戶	水軍萬戶
北兵營 [鏡城]	(鏡城鎮)*	明川	朱乙溫[경성], 森森坡[경성]	鏡城鎮判官
	慶源鎮		阿山[경원]	
	會寧鎮		豐山[무산], 吉豐山[회령]	
	鍾城鎮		防垣[종성]	
	穩城鎮		永達[온성]	
	慶興鎮		撫夷[경흥], 阿吾地[경흥]	
	富寧鎮		廢茂山[부령]	
	訓戎鎮[경원]			
	潼關鎮[종성]			
	高嶺鎮[회령]			
	柔遠鎮[온성]			
	美錢鎮[온성]			
	吉州鎮	西北[길주]		
	魚游澗鎮[경성]			
南兵營 [北青]	甫乙下鎮[회령]			
	城津鎮[길주]			
	茂山鎮			
			造山浦[경흥]	
	甲山鎮			
	安邊鎮	德源, 文川		
	三水鎮	加乙波知[삼수]		
	惠山鎮[갑산]			
	永興鎮	定平, 高原		
	北青鎮*			利原, 洪原

113) 강석화, 1997, 「조선후기 함경도의 친기위」, 『한국학보』 89, 일지사, 26-30면.

	端川鎮		梨洞		
	長津棚鎮[咸亨]				
	厚州鎮				
監營[咸興]	(咸興鎮)				咸興鎮判官

- 전거: 『大典會通』, 『大東地志』(古 4790-37) / []: 『北關志』(奎 1261), 『關北邑誌』(奎 10995) / *: 主鎮

〈표 6〉 非鎮管체계

{咸寧}防禦使(2품)	{咸寧}北道衛將(정3품)	{咸寧}南道衛將(정3품)	{咸寧}鎮營將(정3품)
城津僉使[길주]	〈前衛〉會寧府使 〈左衛〉鍾城府使 〈中衛〉穩城府使 〈右衛〉慶源府使 〈後衛〉慶興府使	〈前衛〉富寧府使 〈左衛〉鏡城判官 〈中衛〉茂山府使 〈右衛〉明川府使 〈後衛〉吉州牧使	〈前營〉洪原縣監 〈左營〉甲山府使 〈中營〉永興府使 〈別中營〉端川府使 〈右營〉三水府使 〈後營〉德源府使
討捕使(정3품)*	{咸寧}北道權官(종9품)	{咸寧}南道權官(종9품)	{北道}別將(종9품)
{咸寧}明川府使, 會寧府使, 慶源府使, 鏡城虞候 {咸寧}永興府使, 德源府使, 洪原縣監, 甲山府使, 三水府使	吾寸[경성] 寶化堡[경성] 梁永萬洞[부령] 乾原[경원] 黃拓坡[온성] 安原[경원] 西水羅[경흥]	小農堡[삼수] 同仁[갑산] 舊茄乙波知[삼수] 雲龍[갑산] 鎮東[갑산] 仁遮外[삼수] 羅喰[삼수]	中嶺[咸亨] 赴戰嶺[咸亨]

- 전거: 『大典會通』, 『大東地志』(古 4790-37), 『關北』邑誌(奎 667).

- []: 『北關志』(奎 1261), 『關北邑誌』(奎 10995)

(2) 鎮堡의 위치

한편, 『대전회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방어체계의 구조는 알 수 있지만, 역으로 고을 이외에 별도로 설치한 鎮이나 堡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지리지나 지도를 통해서 고을별 진보의 위치를 대조해볼 수 있다.¹¹⁴⁾ 곧 1756년 『관북읍지』(想白古 915.19-G995)의 함경도 북부지도, 『海東地圖』 함경도(고대 4709-41), 『輿地圖』 關北圖(古 4709-68), 『廣輿圖』 關北圖(古 4790-58) 등의 지도자료를 살펴보

114) 함경도 진보의 설치경과는 다음연구가 상세하다. 강석화, 2005, 앞 논문, 314-319면; 고승희, 2005, 앞 논문, 340-344면, 347-351면, 354-362면, 365-371면.

면, 고을과 주변 鎮堡의 위치가 쉽게 확인된다. 특히 〈표 7〉과 같이 지리지와 법전 자료를 맞추어보면 인근고을과 주변진보의 관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표 7〉 함경도 고을별 鎮·堡 현황

읍명	1765년 『輿地圖書』	1784년 『北關志』 〈奎 1261〉	1808년 『萬機要覽』* 〈奎 1151〉	1872년 『關北邑誌』* 〈奎 10995〉
안변	浪城浦營			浪城浦鎮
문천			雲林鎮	
영흥			聖歷山城, 山倉洞城	
정평	道安浦營		隨時里城	
합흥	長津柵, 中嶺堡, 赴戰 嶺堡		[赴戰嶺]	中嶺堡, [赴戰嶺], 長津 柵
홍원			邑城	
북청			府城	
이원			邑城	
단천	雙青堡, 黃土岐堡, 梨洞 堡, 頓山廢堡		邑城, 磨雲嶺長城, 雙青 堡, 黃土岐堡	阿吾乙足堡, 雙青堡, 黃 土岐堡, 崇義堡
길주		西北堡, 斜下北堡, 德萬 洞小堡, 梨德小堡, 將軍 坡堡, 城津鎮	西北鎮, 城津鎮, [將軍 坡嶺]	西北鎮, 將軍坡堡, 斜下 北堡, 德萬洞堡, 城津鎮
명천	在德堡	在德堡, 斜尗洞堡	邑城, [斜尗洞]	[斜尗洞]
감산	惠山鎮, 雲竈堡, 同仁 堡, 鎮東堡		邑城	惠山鎮, 同仁堡, 雲竈 堡, 鎮東堡
삼수	仁遮外堡, 羅暖堡, 小 農堡, 茄乙坡知堡, 舊 茄乙坡知堡, 自作堡, 魚面堡, 江口堡, 神方堡, 廟坡堡, 別害鎮		邑城, 仁遮外堡, 羅暖 堡, 小農堡, 加乙坡知 堡, 舊茄乙坡知堡, 自 作堡, 魚面堡, 神方堡, 廟坡堡, 別害鎮, 舊茄乙 坡知廢堡	仁遮外權管堡, 羅暖權 官堡, 小農權官堡, 茄 乙坡知僉使鎮, 舊茄乙 坡知權官堡
부령	廢茂山堡	茂山鎮, 玉蓮堡, 梁永萬 洞堡	邑城, 玉蓮堡, 廢茂山 堡, 梁永堡	廢茂山堡
무산	梁永萬洞權官, 豊山萬 戶	豐山堡, 梁永堡	邑城, 豊山城	豐山堡, 梁永堡
회령	高嶺鎮, 甫乙下鎮, 古豊 山堡	高嶺鎮, 甫乙下鎮, (古) 豊山堡	邑城, 行城, 古豊山堡, 廢堡	高嶺鎮, 甫乙下鎮, 古 豊山堡

종성	<u>潼關鎮</u> , 防垣堡, 細川 堡	北道節度使行營, <u>潼關 鎮</u> 細川堡	邑城, 豆滿江行城, <u>潼關 鎮</u> , 防垣堡, 童巾城	行營, 舟楫, <u>潼關鎮</u> , 防 垣堡
온성	<u>柔遠鎮</u> , 美錢鎮, 永達 堡, 黃柘坡堡	<u>柔遠鎮</u> , 美錢鎮, 永達 堡, 黃柘坡堡	邑城, 豆滿江行城, <u>柔遠 鎮</u> , 美錢鎮, 黃柘坡堡, 永達堡, 豐川堡	<u>柔遠鎮</u> , 美錢鎮, 永達 堡, 黃柘坡堡, 時建堡, 周原堡, 樂土堡,
경원	訓戍僉使, 安原權管, 乾原權管, 阿山萬戶		邑城	訓戍僉使, 安原權管, 乾原權管, 阿山萬戶
경흥	造山堡, 摩夷堡, 西水 羅堡	摩夷堡, 造山堡, 阿吾 地堡, 西水羅堡, 鹿屯 島堡	邑城, 阿吾地城	
경성	魚游澗鎮, 吾村堡, 朱 乙溫堡, 寶化堡, 森森 坡堡	魚游澗堡, 朱乙溫堡, 森森坡堡, 吾村堡, 甫 老知堡, 甫化堡, 甫化 德柵, 芹洞堡	邑城	魚游澗鎮, 吾村堡, 朱 乙溫堡, 寶化堡, 森森 坡堡

- 밑줄: 『大典會通』과 일치하는 鎮堡 / *: ~嶺은 제외. / [] : 전후 堡로 표기된 경우. / 순서: 남부→북부

아울러 18세기 『북관지』와 19세기 『관북읍지』(奎 10995)를 비교하면 ‘관방’에서 ‘關防’, ‘嶺隘’, ‘關隘’, ‘鎮堡’, ‘把守’ 등으로 항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물론 이보다 앞서 18세기 『여지도서』 단계에서 함경도는 ‘鎮堡’와 ‘關阨’을 구분하거나 혹은 혼용하여 작성하였다.¹¹⁵⁾ 진이나 보와 같은 군사기지에서 주요 도로망의 군사요충지로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고개를 나타내는 ‘~嶺’ 중심으로 기재되었고 關隘나 嶺隘로 항목이 설정되었다가, 별도로 검문소를 설치하거나 비상시 지키는 거점으로서 把守나 防守 혹은 盜直 등의 명칭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분류기준이 중복해서 쓰이므로 대개 군사상 실제 부대가 주둔하는 관방 혹은 진보, 유사시 주요한 지명은 관애나 영애, 평시 주요 검문대상지는 파수나 방수 혹은 도직으로 표기했다. 아울러 파수 중에는 진보와 중첩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고을별로 작성기준도 다소 다르다.¹¹⁶⁾

115) 『輿地圖書』下冊, 咸鏡道[1973,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29-301면].

116) 『관북읍지』(奎 10995)에는 關防(함흥, 덕원, 단천*, 경성, 종성)이나 鎮堡(안변*, 정평*, 길주*, 명천, 부령*, 무산*, 회령, 온성*, 경원*, 갑산*, 삼수*, 장진*), 關隘(홍원, 안변*, 영흥, 정평*, 길주*, 문천, 부령*, 경원*, 경흥*, 삼수*, 장진*)나 嶺隘(북청*, 이원*, 단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방어권역은 대체로 함경산맥의 배후인 동해연안 고을을 기점으로 방어체계가 갖추어지고, 여기에 압록강 유역의 방어선과 두만강 유역의 방어선이 원을 그리면서 확장되는 방식으로 3개 권역의 방어를 이 짜여진 듯하다.¹¹⁷⁾

먼저, 北道五衛지역(Ⅲ)은 동해안에서 두만강으로 연결되는 최북단 고을인 경흥, 경원, 온성, 종성, 회령이다.¹¹⁸⁾ 함경북도에서 邊地로 인식된 지역으로 완전한 군사 도시의 형세를 하고 있다. 세종대 6진 중 부령을 제외한 5읍이다. ①진관제하 5읍이 모두 僉節制使의 獨鎮¹¹⁹⁾을 이루고 있으며, 별도의 僉節制使巨鎮 및 萬戶諸鎮이 빽빽히 설치되어 있다. ②오위제하 北道五衛까지 운영되었다. ③군사상 요충지인 鏡城에는 북병사의 行營이 있으며, 要路마다 權官堡도 다수 증설되었다. 『만기요람』에는 前衛將 회령부사(各色衛軍 5,867명), 左衛將 종성부사(각색위군 5,398명), 中衛將 온성부사(각색위군 1,913명), 右衛將 경원부사(각색위군 4,723명), 後衛將 경흥부사(각색위군 2,154명), 모두 行營[종성]에 속한다고 하였다.¹²⁰⁾

다음으로, 南道五衛지역(Ⅱ)은 동해연안 고을인 길주·명천·경성과 두만강 유역 이남의 내륙고을인 부령·무산이다. 역시 해안 고을이 중심이 되고 두만강 방향으로 추진되어 방어하는 형세를 띠고 있다. ①진관제하 후방에 있는 鏡城에 북병영을 설치하여 主鎮으로 삼았고, 길주·부령·무산이 巨鎮으로 편제되어 지휘한다. 僉節制使巨鎮 및 萬戶諸鎮이 다수 설치되었다. ②부령·경성·무산·명천·

천*, 고원, 무산*, 경흥*, 갑산*), 把守要路(복청*), 把守盜直幕(이원*), 把守(온성*, 경원*, 경흥*, 갑산*, 삼수*), 防守(경흥*), 盜直(갑산*) 등으로 다양하게 확인된다. 특히 같은 고을의 읍지에서 복수 항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117) 이와 유사하게 고승희도 군현발달 지역을 3가지 형태로 구분하였고, 강석화는 남관 영장제 북관 오위로 설명하였다. 고승희, 2005, 앞 논문, 342면; 강석화, 2005, 앞 논문, 306면.

118) 두만강 유역은 다음 지도가 상세하다. 『八道地圖』, 咸鏡北道〈奎 10331〉·〈古 4709-23〉·〈古軸 4709-48〉; 『海東地圖』, 咸鏡北道〈古 4709-61〉.

119) 함흥, 단천, 삼수, 갑산, 길주, 경원, 회령, 종성, 온성, 경흥, 부령, 무산, 장진, 후주 등의 고을이 獨鎮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외에 상당수 僉使鎮도 독진으로 확인된다. 『大東地志』 卷19, 咸鏡道〈古 4790-37〉.

120) 『萬機要覽』, 軍政篇1, 五衛, 附北道衛制〈奎 1151〉.

길주 5읍에 남도오위가 운영되었다. ③군사적 요충지 길주(성진)에는 防禦營을 설치하여 해안의 방어거점을 강화하였다.¹²¹⁾ 또 權官堡가 지역별로 추가 배치되었다. 상대적으로 함경부도에서 內地로 인식된 곳이다.¹²²⁾ 『만기요람』에는 前衛將 부령부사(각색위군 2,625명), 左衛將 경성판관(각색위군 5,613명), 中衛將 무산부사(각색위군 4,326명), 右衛將 명천부사(각색위군 3,599명), 後衛將 길주목사(각색위군 5,867명), 이상 本營[경성]에 속한다고 하였다.¹²³⁾

마지막으로, 營將制지역(I)은 강원도북부연안에서 함경남도연안까지 안변·덕원·문천·고원·영흥·정평·함흥·홍원·북청·이원·단천 등이 해안을 중심으로 내륙을 향해서 방어망을 길게 연결하고 있으며,¹²⁴⁾ 여기에 갑산·삼수·(장진·후주)가 압록강 유역 최전방 기지로 推進되어있는 형국이다.¹²⁵⁾ 함경산맥이 남서에서 북동으로 길게 뻗어있어 자연방어선이 동해안 연안고을을 막아주고 있고, 내륙 북방도 평안도와 함께 방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후방이다. 그래서 남부지방과 동일하게 영장제가 실시된 곳이다. 이 지역은 ①진관제하 북청이 남병영으로서 主鎮이 되고, 영흥과 안변이 각각 巨鎮이 되어 여러 고을을 지휘하였다. 여기에 함흥은 여러 고을의 중앙에 위치하여 있으면서 巡營으로서 長津柵鎮¹²⁶⁾이나 中嶺堡 및 赴戰嶺堡 등의 2개 別將堡를 갖춘 자체방어망을 갖고 있다.¹²⁷⁾ ②영

121) 이후 점차 城津僉使가 방어사를 겸직하다가 후대에 城津郡으로 독립하기에 이른다. 『城津郡邑誌』(奎 11002).

122) 배우성, 1998, 앞 책, 106면.

123) 『萬機要覽』, 政軍篇1, 五衛, 附北道衛制(奎 1151).

124) 『海東地圖』, 咸鏡道(古代 4709-41).

125) 갑산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군사거점이고 이후 삼수, 장진, 후주 순서로 변방거점이 확장되면서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大典會通』 卷1, 吏典, 外官職, 咸鏡道; 『甲山三水長津邑誌』(奎 11003). 압록강 유역은 지도는 참조. 『朝鮮八道地圖』, 咸鏡南道·咸鏡北道(古 4709-54).

126) 그 중 장진책은 압록강으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장진도호부로 승격하였다.

127) 조선초기 관찰사가 머무는 咸興도 여러 군의도나 거진 중 하나로 독자적으로 기능했으나, 후기에는 점차 남북 병사의 주진아래에 각 거진이 재배치되었다. 『大東地志』에는 관찰사의 巡營인 咸興을 獨鎮으로 표기하였다. 후대에는 長津柵堡가 僉使鎮으로 독립하였고 다시 도호부가 되었다. 함흥의 방어체계 구축과 독진화과정은 다음 참조. 노영구,

장제하·덕원·영홍·홍원·단천·갑산·삼수에 5개 鎮營을 설치하여 방어망을 중층적으로 구성하였다. ③이외에도 군사적 요충지인 갑산에는 남병사의 行營을 설치하여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특히 갑산과 삼수와 같은 최전방 기지에는 많은 權官堡가 추가로 배치되었다.

결국, 함경도의 각 방어체계는 ①진관제[兵使·僉使·萬戶·都尉], ②영장제·오위제[營將·衛將], ③기타[防禦使·權官·別將] 등 3가지 형태가 중층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진관체제 및 非진관체제를 포함해서 함경도의 21읍은 세종대 군의도 및 세조대 거진에서 유래한 군사단위이다.¹²⁸⁾ 두 체제에서 직접 鎮堡를 지휘하는 목민관을 겸직하지 않는 무신은 〈표 5〉와 같이 진관체제에서 26원, 〈표 6〉과 같이 비진관체제에서 16원으로, 이들은 상호보완적 관계이다.¹²⁹⁾ 또 동해안 연안에는 관찰사[함흥], 남병사[북청], 방어사[성진], 북병사[경성] 등 종2품 재신이 파견되어 거점방어를 지휘하였고, 여기에 오영, 남도오위, 북도오위 등 15지역에 정3품 당상관이 진영장 및 위장을 맡았다. 이미 제승방략체제부터 기존 鎮管에 별도 鎮堡를 추가하여 몇 개의 고을을 묶어서 방어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사실상 僉使鎮, 萬戶鎮, 權官堡 등이 일원적으로 각 衛將의 지휘체계하에 各 部將으로 재편되었다.¹³⁰⁾ 그 유래가 서로 다른 제도라도 실제로 각 진보는 권역별로 통합지휘되고 있었다.

2005, 앞 논문, 393-396면.

128) 세종-세조-고종대 일치하는 군사거점은 함흥, 영홍, 고원, 길주, 경원, 북청, 홍원, 정평, 문천, 이원, 온성 경흥, 안변, 덕원, 문천, 단천, 회령, 부령, 종성, 경성, 갑산 등 21읍이다. 『世宗實錄』 卷155, 地理志, 咸吉道; 『世祖實錄』 卷2, 世祖 元年 9月 癸未[11日]; 『大典會通』 卷4, 兵典, 外官職, 咸鏡道.

129) 진관체제하에서 첨절제사 25원, 동첨절제사 7원, 만호 11원, 수군만호 1원, 절제도위 4원 등 총 48원(22원 목민관 겸직)이다. 반면에 비진관체제에서 방어사 1원, 진영장 6원, 위장 10원, 권관 14원, 별장 2원 등 총 33원(16원 목민관 겸직, 1원 첨사 겸직)이다. 최소한 목민관 16원은 양체제를 직접 겸직하고 있다.

130) 강석화, 2005, 앞 논문, 308-313면.

〈표 8〉 19세기 함경도 권역별 방어체계

읍명	권역	관할	수로	목민관/진관	목민관/Non-Subsidy Governor	Non-Subsidy Governor/Subsidy Governor	Non-Subsidy Governor/Non-Subsidy Governor
안변	I	南兵營	동해안	[안변]安邊(巨)鎮			
덕원	I	南兵營	동해안	[안변]德源(諸)鎮	後營/討捕營		
문천	I	南兵營	동해안	[안변]文川(諸)鎮			
고원	I	南兵營	동해안	[영흥]高原(諸)鎮			
영흥	I	南兵營	동해안	[영흥]永興(巨)鎮	中營/討捕營		
정평	I	南兵營	동해안	[영흥]定平(諸)鎮			
함흥	I	觀察營	동해안	咸興(主獨)鎮	觀察營	長津柵(巨)鎮	中嶺堡{別將}, 赴戰嶺堡{別將}
홍원	I	南兵營	동해안	[북청]洪原(諸)鎮	前營/討捕營		
북청	I	南兵營	동해안	[북청]北青(主)鎮	南兵營		
이원	I	南兵營	동해안	[북청]利原(諸)鎮			
단천	I	南兵營	동해안	端川(獨)鎮	別中營		
감산	I	南兵營	압록강	甲山(獨)鎮	左營 /討捕營 /南行營	惠山(獨)鎮	同仁堡{權官}, 雲龍堡{權官}, 鎮東堡{權官}
삼수	I	南兵營	압록강	三水(獨)鎮	右營/討捕營	加乙坡知(諸)鎮	仁遮外堡{權官}, 羅喰堡{權官}, 小農堡{權官}, 舊加乙坡知堡{權官}
길주	II	北兵營	동해안	吉州(獨)鎮	防禦營(城津) /南道後衛	城津(獨)鎮, [길주]西北(諸)鎮	
명천	II	北兵營	동해안	[경성]明川(諸)鎮	南道右衛/討捕營		
경성	II	北兵營	동해안	[경성]鏡城(主)鎮	北兵營 /南道左衛	魚游澗(獨)鎮, [경성]朱乙溫堡{萬戶諸鎮}, [경성]森森坡堡{萬戶諸鎮}	吾村堡{權官}, 寶化堡{權官}
부령	II	北兵營	동해안	富寧(獨)鎮	南道前衛	廢茂山堡{萬戶諸鎮}	梁永萬洞堡{權官}
무산	II	北兵營	두만강	茂山(獨)鎮	南道中衛	豐山堡{萬戶諸鎮}	
경흥	III	北兵營	두만강	慶興(獨)鎮	北道後衛	撫夷堡{萬戶諸鎮}, 造山堡(浦){萬戶諸鎮}, 阿吾地堡{萬戶諸鎮},	西水羅堡{權官}
경원	III	北兵營	두만강	慶源(獨)鎮	北道右衛 /討捕營	訓戎(獨)鎮, 阿山{萬戶諸鎮}	安原{權官}, 乾原{權官}

온성	Ⅲ	北兵營	두만강	穩城(獨)鎮	北道中衛	柔遠(獨)鎮、 美錢(獨)鎮、 永達堡{萬戶諸鎮},	黃拓坡堡{權官}
종성	Ⅲ	北兵營	두만강	鍾城(獨)鎮	北道左衛 /北行營	潼關(獨)鎮、 防垣堡{萬戶諸鎮}	
회령	Ⅲ	北兵營	두만강	會寧(獨)鎮	北道前衛/討捕營	高嶺(獨)鎮、 甫乙下(獨)鎮、 古豐山堡{萬戶諸 鎮}	

- 전거: 『大典會通』, 『北關志』(奎 1261), 『大東地志』(古 4790-37), 『關北邑誌』(奎 10995)

- [] : 鎮管상 관할 巨鎮 표시 / 순서: 남부→북부 / * : 獨鎮

2) 交通網

(1) 陸路교통: 驛路, 烽燧, 驛院, 擂撥

함경도는 최북단 군사요충지였으므로, 聯絡網의 신속성이 보장되어야 했다. 먼저 주요 驛路를 『대전회통』을 통해 살펴보면 高山道, 居山道, 輸城道 등으로 나누어 察訪이 파견되었고, 각기 속역 13여, 23여, 21여 등이 부속되었다.¹³¹⁾ 〈표 9〉와 같이 법전과 지리지를 대조하면, 속역이 위치한 인근고을을 확인해볼 수 있다.

대체로 고산도는 안변부근에 察訪道驛이 있으며, 각 속역은 안변→덕원→문천→고원→영흥→정평→함흥 등으로 남에서 북으로 동해안 연안고을을 연결하였다. 현재 강원도북부와 함경남도를 연결하는 남부지역을 담당하였다. 거산도는 북청인근에 찰방도역이 있으며, 북청→갑산→삼수 등 압록강유역 개마고원과 북청→홍원→이원→단천→길주→명천 등 동해안 고을 두 방향으로 역로가 움직였다.¹³²⁾ 이에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및 양강도를 연결하는 중부지역을 맡았다. 수성도는 경성부근에 찰방도역이 있으며, 각 속역은 경성→부령→회령→종성→온성→경원→경흥 등을 시계방향으로 지났다. 곧 함경북도의 역로로서 북부지역을 담당하였다.¹³³⁾

131) 『관북역사례』에는 고산도와 거산도만 실려있으나 법전에는 3개 역로가 보인다. 驛路는 1895년(고종 32) 갑오개혁 이듬해까지 존속하였다. 『關北驛事例』(奎貴 12202); 『大典會通』卷1, 更典, 外官職, 咸鏡道.

132) 이는 일반 官路의 설명이며, 『해동지도』 황해도지도(奎高大 4709-41)에는 함흥→장진→삼수→갑산으로 그렸다고 한다. 고승희, 2003, 앞 책, 55면, 67면.

〈표 9〉 1865년 함경도 驛路 현황

察訪驛	驛路(현재 도명)	隣近邑과 屬驛	비고
高山道 (안변)	安邊(강원)→德源(강원)→文川 (강원)→高原(함남)→永興(함남) →定平(함남)→咸興(함남)→[長津(함남)]	안변의 南山·朔安·火燈·奉龍, 德원의 鐵關, 문천 의 良驥, 고원의 通達·隘守, 영흥의 和原, 정평 의 蓬臺·草原, 함흥의 平原·德山	13驛 [남부]
居山道 (북청)	三水(양강)←甲山(양강)←北青 (함남)→洪原(함남)→利原(함남) →端川(함남)→吉州(함북)→明川 (함북)	삼수의 積生, 갑산의 終浦·熊耳·虛川·惠山·許麟 [虛麟]·呼麟, 북청의 濟人·五川·慈航[磁航]·黃 水, 홍원의 咸原·新恩·平浦, 이원의 施利·谷口, 단천의 基原·麻谷, 길주의 嶺東·臨溟·雄平, 명천 의 明原·古站	23驛 ¹³⁴⁾ [중부]
輸城道 (경성)	鏡城(함북)→富寧(함북)→茂山 (함북)→會寧(함북)→鍾城(함북) →穩城(함북)→慶源(함북)→慶興 (함북)	경성의 吾村·朱村·永康, 부령의 石堡·懷綏, 무 산의 茂山[邑站]·麻田·豐山, 회령의 寧安·樂 山[櫟山]·新豐(?) 종성의 鍾慶·撫安·鹿野, 온성 의 撫寧·德明, 경원의 馬乳·燕基·阿山, 경흥의 江陽·雄撫[雍撫]	21驛 [북부]

- 기준시점: 『大典會通』, 비교전거: 『新增東國輿地勝覽』(奎貴 1932), 『輿地圖書』, 『萬機要覽』(奎 1151), 『關北邑誌』(奎 10995), 『德源府邑誌』(奎 17527), 『咸鏡北道茂山府邑誌』(奎 17539)
- ?: 인근 읍명 미상 / [] : 추정 / 단, 기준 大中小路를 고려하지 않고 인근 고을 중심으로 구성함.

여러 道誌에는 역로와 더불어서 驛과 院이 상세하게 실려있으며, 擺撥을 보낼 수 있는 擺所가 대체로 함께 붙어있다. 또한 각 산의 봉우리마다 烽燧臺가 매우 稠密하게 서술되어 있다.¹³⁵⁾ 그중 『관북읍지』(奎 10995)가 관련 도지 중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함경도의 驛[站]·院은 총 81個所이고, 擺所는 59개소, 烽臺는 157개소이다.¹³⁶⁾

133) 申景濬의 『道路考』를 비롯한 함경도 도로망의 상세 설명은 다음 참조. 고승희, 2003, 앞 책, 54-62면, 67면.

134) 단, 순조대 『萬機要覽』에는 거산도만 屬驛이 21개로 다르게 나온다. 咸原·新恩·平浦·五川·慈航·濟人·黃水·終浦·熊耳·呼麟·虛川·虛麟·惠山·積生·施利·谷口·基原·雄坪·臨溟·邑明·古站, 『萬機要覽』, 軍政篇, 驛遞, 各道屬驛(奎 1151).

135) 배우성, 1998, 앞 책, 229-234면; 강석화, 2005, 앞 논문, 319-326면.

136) 단, 영조대 『輿地圖書』에는 驛/站과 擺所/撥卒/站/院으로 구분하여 역과 파발의 구성원을 驛吏/站吏/奴/婢와 擺將/撥卒 등으로 표기하되 명칭은 站을 혼용했다. 고종대 『관북읍지』(奎 10995)에도 站이 驛을 지칭하는데도 활용되었다.

이를 역로를 고려하여 재배열하면 〈표 10〉과 같다. 역로를 지리지와 법전을 비교하면 문천, 종성, 수성을 제외하면 모두 대체로 법전의 역명이 『관북읍지』에 수록되어 있다. 특히 법전에는 察訪驛이나 屬驛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데, 道誌에는 읍지별로 역원을 기재하여 인근역망을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표 10〉 1872년 함경도 24읍 교통 시설

역로	道誌 순서	읍명	고종대 구분	驛·院[驛站/郵驛]	擺撥[撥所]	烽燧[烽臺]
고산	5	安邊	南道	高山驛(察訪驛), 南山驛, 奉龍驛, 喬安驛, 火燈驛, 高山院, 南山院(7)	高山撥所, 引豆門撥所, 花山撥所(3)	已同, 山城, 沙峴, 鐵嶺(4)
고산	6	德源	南道	鐵關驛(1)	無	長德山, 素達山(2)
고산	7	文川	南道	無[良驛노리]	無	無
고산	8	高原	南道	通達驛, 隘守驛(2)	無	熊望山(1)
고산	9	永興	南道	利原站[和原], 龍興院, 金坡院, 下東院(4)	無	聖歷山, 德峙, 鎮戍山, 寧仁七城里, 末鷹島(5)
고산	10	定平	南道	草原驛, 草原院, 蓬臺驛(3)	無	鳥白山, 王愁洞(2)
고산	1	咸興 [監營]	南道	平原館, 德山驛, 新院, 平川院(4)	平原, 德山, 桐亭里, 中嶺(4)	城串山, 草古代, 退潮倉嶺, 執三味(4)
고산 (?)	24	長津	南道	邑站, 雪館站, 德實站, 新東站, 舊邑站, 碣隅站, 錦院站(7)	無	{文川}(1)
거산	2	洪原	南道	咸原站, 新恩站, 平浦站(3)	新恩撥, 平浦撥(2)	南山(1)
거산	3	北青 [南兵營]	南道	吾川驛, 居山驛(察訪驛), 慶州驛, 濟仁驛, 黃水驛, 大亭院, 新院(7)	五川驛, 居山驛, 濟仁館, 黃水院(4)	馬底, 蘆火, 厚峙, 新設, 沙乙耳, 者羅耳, 石茸, 山城, 佛堂, 陸島(10)
거산	4	利原	南道	施利站, 谷口站(2)	施利撥, 谷口撥(2)	城門峙, 斗乙應峙, 邑主峯, 貞島峯(4)
거산	11	端川	南道	基原驛, 馬谷驛, 永濟院, 忠信院(4)	無	胡打里, 吾羅退, 末迄羅, 養山, 波獨只, 章項, 古所里, 家舍, 雙青口字峯, 蓼嶺, 檢義德, 馬騰嶺, 隱龍德(13)
거산	12	吉州	北道	雄坪驛, 臨溟站, 嶺東驛(3)	雄坪撥, 山城撥站, 臨溟撥站, 嶺東撥站(4)	碌磻, 魁校峴, 山城, 場古介, 崔細洞, 西山, 高峯, 將軍坡, 雙浦嶺, 岐里洞(10)
거산	13	明川	北道	明原站, 古站(4)	明原撥, 古站撥(2)	北烽臺, 項浦洞烽臺, 古站峙烽臺(3)

거산	22	甲山	南道	<u>樂生站</u> , <u>熊耳站</u> , <u>呼獮站</u> , <u>虛川站</u> , <u>虛獮站</u> , <u>惠山站(6)</u>	虛獮, 虚川, 呼獮, 熊耳, 樂生(5)	阿方金德烽, 柏德嶺烽, 錄磻烽, 阿叱間嶺烽, 伊叱茄乙烽, 南烽, 龍岡烽, 鷹德嶺烽(8)
거산	23	三水	南道	<u>積生驛</u> , 大洞院, 農坪院(3)	積生, 仁遮外, 羅暖, 小農, 茄乙波知(5)	水永洞, 仁遮外西峰, 羅暖南峯, (羅暖)西峰, 茄乙波知鎮壠洞峰, 舊茄乙波知松乙峰, (舊茄乙波知)西峰(7)
수성	15	富寧	北道	<u>石堡站</u> , <u>懷矮站(2)</u>	官門撥所, 簇項撥所, 虛古院撥所, 廢茂山撥所(4)	黑毛隅, 南峯, 仇井坂, 柒田山(4)
수성	16	茂山	北道	<u>麻田站</u> , <u>邑站</u> , <u>豐山站</u> , 梁永館(4)	無	南嶺烽, 鐘峴烽, 西峴烽, 大巖烽, 瓊伯德烽(5)
수성	17	會寧	北道	<u>寧安站</u> , 古豊站, <u>櫟山站(3)</u>	無	高嶺鎮下乙浦, 北峰, 竹堡, 邑吾弄草, 鱼山, 古烟臺, 雲頭峰, 松峰, 甫乙下鎮中峰, 奉峴, 梨峴, 古豊山堡古峴, 行營傳報內地德, 南孝郎(14)
수성	18	鍾城	北道	<u>無[鍾慶·撫安·鹿野 누락]</u>	官門擺撥所, 漣關擺所, 防坦撥所, 細川擺所, 撫安撥所, 鷺巖撥所(6)	北峰烽臺, 南峰烽臺, 三峰烽臺, 鳥碣烽臺, 防坦金回還烽臺, 內烟臺, 行營鎮北樓烟臺(7)
수성	19	穩城	北道	<u>撫寧驛</u> , <u>德明館及驛(2)</u>	官門撥所, 永遠撥所, 黃拓坡撥所, 德明站撥所(4)	立巖, 錢江, 美錢, 浦項, 坪, 射場, 柔遠坪, 鴨江, 古城, 時達, 犬灘, 中峰, 松峰, 小童巾, 行營傳報內, 新增山城, 深浦山, 東豐, 小白山, 枇德山(20)
수성	20	慶源	北道	<u>馬乳站</u> , <u>燕基站</u> , 古阿站(3) <u>[阿山누락]</u>	馬乳撥, 訓戎撥, 安原撥, 燕基撥, 新乾撥, 新阿撥(6)	南山烽, 厚訓烽, 訓戎嶺城上烽, 簇項烽, 馬乳烽, 中峰烽, 東林烽, 水汀烽, 件加退烽, 白顏烽(10)
수성	21	慶興	北道	<u>江陽驛</u> , <u>雄撫驛(2)</u>	西水羅撥所, 造山撥所, 官門撥所, 阿吾地撥所(4)	西水羅牛巖, 造山南山, 豆里, 屈伸浦, 望德, 浦項峴, 西峰, 阿吾地東峯(8)
수성	14	鏡城 [北兵營]	北道	輸城驛(察訪驛), <u>吾村驛</u> , <u>永康驛</u> , <u>朱村驛</u> , 雲威院(5)	輸城撥所, 吾村撥所, 永康撥所, 雲站撥所(4)	松谷峴, 康德, 魚遊澗遼山, 羅赤, 吾村堡下, 長坪, 朱乙溫堡古, 佛巖, 永康, 寶化堡下峰, 森森坡松臺, 朱村, 中德, 壽萬德(14)
합계				81	59	157

- 전거: 『關北邑誌』(奎 10995) / () : 소개 / 밀줄: 법전일치 / ? : 역로 미확인 / { } : 『萬機要覽』(奎 1151)

『여지도서』를 활용해서 역참, 발소, 봉대의 규모를 확인해보면, 비교적 역참이나 발소는 대다수의 표기가 자세하여 상당수 복원이 가능하다. <부표 2>와 같이 역참은 목민관에 해당하는 察訪 3인이 파견되어 각기 속역을 거느리며 驛吏[站吏], 驛奴, 驛婢 등이 보이며, 일반 고을과 유사하게 동일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그 규모는 38,191명이다.

한편, 발소나 봉대는 準군사조직처럼 운영되었다. 발소는 撫將이 있고 撫卒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고을별로 표기법이 다르다. 정원 전체를 기록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¹³⁷⁾ 교대로 실제 근무하는 인원수만 표기한 경우도 있다.¹³⁸⁾ 또 실제 고을의 읍세를 반영하여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여지도서』의 숫자 표기에 따르면, 발소는 <부표 3>과 같이 9,538명 수준이다. 역참의 규모가 발소보다 약 4배 이상 많은 편이다.

이외에 烽臺는 정확한 인원구성원이 표기된 경우가 많지 않아서 확인 가능한 경우만 보면 <부표 4>와 같이 각 봉대는 대략 別監 및 武士 등으로 구성되며 100명 내지 200명 내외의 인원이 할당되었고, 특히 합홍은 발소처럼 윤번으로 근무하였다.¹³⁹⁾

(2) 水路교통: 海津[浦口]

본래 함경남도는 동해연안에 발달하였으므로 地理志에는 海津의 상황도 기술되어 있다. 함경도 各邑의 위치는 3가지 水路로 나누어볼 수 있다.¹⁴⁰⁾ (가)동해연안 고을이다. 안변, 덕원, 문천, 고원, 영흥, 정평, 함흥, 홍원, 북청, 이원, 단천, 길주,

137) 『輿地圖書』, 咸鏡道, 穩城, 撫站.

138) 『輿地圖書』, 咸鏡道, 文川, 撫站; 『輿地圖書』, 咸鏡道, 咸興, 撫站; 『輿地圖書』, 咸鏡道, 三水, 撫站.

139) 『輿地圖書』, 咸鏡道, 茂山, 軍兵; 『輿地圖書』, 咸鏡道, 咸興, 烽燧.

140) 『海東地圖』, 咸鏡道<고대 4709-41>; 『輿地圖』, 關北圖<古 4709-68>; 『廣輿圖』, 關北圖<古 4790-58> 참조. 이외에 『증보문헌비고』에는 동해 항로를 함경도에서 강원도로 서술하면서 주로 관북을 초점에 두고 설명하고 있으나 해안경로를 소개하는 수준이다. 『增補文獻備考』 卷31, 輿地考19, 關防7, 海防(東海).

명천, 경성, (부령), 경흥 등이다.¹⁴¹⁾ (나) 두만강유역 고을이다. 경원, 온성, 종성, 회령, 무산이다. (다) 압록강유역 고을이다. 갑산, 삼수, 장진이다.

현재 지리지에는 대개 ‘海津’, ‘津渡’, ‘浦口’로 항목이 잡혀있다. 1756년 『관북읍지』〈想白古 915.19-G995〉, 1872년 『[관북]읍지』〈奎 667〉, 1784년 『北關志』〈奎 1261〉, 1866년 『大東地志』〈古 4790-37〉, 1872년 『관북읍지』〈奎 10995〉, 1894년 『관북읍지』〈奎 12179〉, 1823년 『三水府邑誌』〈奎 17533〉, 1899년 『長津郡邑誌』〈奎 10980〉 등을 종합해보면, 〈표 11〉과 같다. 여기서 덕원, 문천, 고원, 회령, 무산, 갑산 등 6읍을 제외하고, 현재 추적 가능한 海津은 총 148個所이다.

〈표 11〉 함경도 ‘海津’ 현황

수로구분	읍명	海津 (숫자)	전거	고종대 구분	육상 역로
동해연안	安邊	浪城津, 蛤津, 磨差津(3)	『大東地志』 〈古 4790-37〉	南道	고산
동해연안	德源	無		南道	고산
동해연안	文川	無		南道	고산
동해연안	高原	無		南道	고산
동해연안	永興	白安津, 桃仇味津, 青角仇味津, 尾龍津, 光城里, 加津, 巢鷹津, 魚魚津, 大江津, 武屯津, 小豬島, 大豬島, 沙島津(13)	『關北邑誌』 〈奎 10995〉	南道	고산
동해연안	定平	甘祥津(1)	『大東地志』 〈古 4790-37〉	南道	고산
동해연안	咸興 [監營]	石串津, 集三津, 無乙界津, 斜乙浦津, 細浦津, 鋤斤津, 看者串津, 直津, 馬仇味津, 伐乙溪津, 松島津, 小厚只津, 大厚只津, 泉串津, 羊島津, 木津, 西外津, 長津, 瓮自仇未津, 沙迄乃津, 石淵津, 潤浦津, 詩山津, 夢尙津, 長子浦津, 地境津(26)	『關北邑誌』 〈奎 10995〉	南道	고산
동해연안	洪原	魁魚津, 右看津, 要津(3)	『大東地志』 〈古 4790-37〉	南道	거산
동해연안	北青 [南兵營]	乾自浦津, 巨石津, 噎春津, 新豐津, 新昌津, 長津, 耳津, 松島津, 榆津, 振羅津, 小佛津, 新浦津, 陸島津, 掛島(14)	『關北邑誌』 〈奎 10995〉	南道	거산

141) 단, 부령은 내륙에 있으나 수로가 동해와 연결되어있다.

동해연안	利原	浦津, 島項津, 群仙津, 文星津, 長津(5)	『關北邑誌』 <奎 12179>	南道	거산
동해연안	端川	汀石津, 農所洞津, 甘湯仇味津, 汝海津, 斜乙浦津, 左浦津, 沙浦津, 獐項津, 斜陽津, 吾羅津, 胡禮津, 胡打里津, 津飛大津(13)	『關北邑誌』 <奎 10995>	南道	거산
동해연안	吉州	羅河津, 大浦津, 白古置津, 榆津, 雙浦津, 所波得津, 坡里洞津, 伐長津(8)	『北關志』 <奎 1261>	北道	거산
동해연안	明川	黃津, 古多浦津, 永津, 尹津, 困津, 治宮津, 船倉津, 黃巖津, 厚里津, 倉串尾津, 斜浦津(11)	『北關志』 <奎 1261>	北道	거산
동해연안	鏡城 [北兵營]	道德仇味津, 鹽盆仇味津, 烹川仇味津, 五柳洞津, 長淵浦, 獨仇味津, 元帥臺津, 南夕津, 溫大津, 執三津, 接往津, 魚魚津, 漁大津, 沙津, 梨津, 五常津, 多津, 呼禮津, 穂田仇味津, 麻田仇味津, 大良化津, 小良化津, 无里洞津, 楊津(24)	『關北邑誌』 <奎 10995>	北道	수성
동해연안	慶興	西水羅津, 雍尙津(2)	『北關志』 <奎 1261>	北道	수성
동해연안권	富寧	淸津, 昆布津, 草洞津(3)	『北關志』 <奎 1261>	北道	수성
두만강유역	慶源	屈項津, 倉仇味津, 尹伊多津(3)	『北關志』 <奎 1261>	北道	수성
두만강유역	穩城	夫古里津(1)	『北關志』 <奎 1261>	北道	수성
두만강유역	鍾城	櫻島, 雄串赤津, 榆津, 沙洞津, 時翻津(5)	『北關志』 <奎 1261>	北道	수성
두만강유역	會寧	無		北道	수성
두만강유역	茂山	無		北道	수성
압록강유역	甲山	無		南道	거산
압록강유역	三水	茄乙坡知長津江津, 自作堡前津, 魚面銅洞津 困坪津, 江口堡前所乙外江津, 廟波城坡津, 頭里所津, 都唐仇非津, 別害鎮前一處津(8)	『三水府邑誌』 <奎 17533>	南道	거산
압록강유역	長津	西江津, 古巖津, 舊鎮津, 廟坡津, 江口津(5)	『長津郡邑誌』 <奎 10980>	南道	고산 (?)
소계		148			

3) 財政운영

(1) 고을규모

『세종실록』 「지리지」에 수록되었던 재정정보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제외되었다가, 조선후기 각종 지리지에서 부활하였다. 이에 각 군현의 읍지는 도 단위의 여러 기록과 대조가 가능하다. 재정과 관련하여 주요자료를 검토해보면, 영조대 『輿地圖書』, 정조대 『戶口總數』, 순조대 『萬機要覽』등의 재정기록이 주요한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함경도 호구는 영조대 『輿地圖書』에는 戶口 98,634호, 人口 524,686구(남자 268,711구, 여자 255,974구)인데,¹⁴²⁾ 정조대 『戶口總數』에는 元戶 123,882호, 人口 696,275구(남자 346,381구, 여자 349,894구)으로 나온다.¹⁴³⁾ 『호구총수』를 기준으로 인구가 증가하였고 八道 중 함경도가 약 7%에 해당하며, 이는 북방에 위치한 평안도가 18%, 비옥한 삼남의 경상도 21% 및 전라도 19%와 비슷한 규모를 이루는데 비해 매우 적은 규모이다.¹⁴⁴⁾

『여지도서』의 軍額을 비교해보면 <부표 5>와 같이 함경도 21읍에 약 78,866명이 군병으로 할당되어있다. 동일 자료 내 군액과 호구를 대조하면 전체 호구의 79% 가 군역을 부담해야 하며, 남자 인구의 29%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지도서』에는 일부 군현이 빠져있고 老弱者까지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良丁이 군사방어에 투입되는 상황이다.¹⁴⁵⁾

田結의 경우, 『여지도서』에는 총 89,754결인 반면에,¹⁴⁶⁾ 순조대 『萬機要覽』의 원장부 전답은 관북이 117,746결로 상당한 증가가 확인된다.¹⁴⁷⁾ 같은 시기 관서

142) 『輿地圖書』, 咸鏡道, 觀察營, 戶口.

143) 『戶口總數』第9冊, 咸鏡道(奎 1602)(1996,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324면).

144)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1996, 『호구총수』, 서울대학교 규장각, 「<표 1> 『호구총수』에 기록된 1789년 도별 인구」 참조. 한편, 도별 인구증가 지수를 계량화한 연구도 있는데, 평안도와 함경도는 인조대 146 : 69에서 고종대 873 : 696까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고승희, 2003, 앞 책, 42-43면.

145) 영조대 『良役實摠』 및 『良役總數』, 정조대 『賦役實摠』에는 함경도 자료가 빠져있는데, 이는 군사상 요충지로서 함경도 인력을 자체 방어에 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146) 『輿地圖書』, 咸鏡道, 觀察營, 旱田·水田.

가 119,635결이므로 큰 차이가 없으나, 實結의 경우 관북 66,539결(56%)인데 비해 서 관서가 84,910결(70%)로 평안도의 세수가 숫자나 비율 모두 높다.

함경도는 비교적 늦게 영토에 편입되어 군사도시 성격이 강하다. 고을의 지방행정구역면도 전혀 다르다. 대개 조선의 각읍은 面-里 혹은 面-洞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수도나 큰 고을은 部나 坊을 사용하거나 특수행정구역은 鎮이나 島로 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함경도는 전체 고을이 한결같이 ‘社’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오랫동안 여진이 점거하였다가 수복된 군사도시에 一道 전체에 ‘社’로 일원적인 향촌지배체제를 재구축하였다. 심지어 비교적 고려에 처음부터 복속했던 지역인 安邊의 경우에도 13사 중에서 9개가 조선왕조에서 屬縣을 社로 개편하였다.¹⁴⁸⁾

〈표 12〉『호구총수』 도별 각읍 행정단위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원춘도(강원도)
24邑 社-里	26읍 面-里 14읍 坊-里 1읍 鎮/面-里	5읍 坊-里 18읍 面-里	26읍 面-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한성·경기
71읍 面-里	50읍 面-里 5읍 面-里-島 1읍 坊-里	54읍 面-里	1읍 部-坊-契 1읍 部/面-里 29읍 面-里/洞 8읍 面-里-島

함경도 각읍의 호구와 전결을 합산하면 邑勢를 極小邑, 小邑, 中邑, 大邑 등 4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¹⁴⁹⁾ 『여지도서』를 기준으로 함경도는 〈표 13〉과 같이 대읍

147) 『萬機要覽』, 財用編2, 田結, 八道元帳付田畝〈奎 1151〉.

148) 『咸鏡南道安邊都護府邑誌』, 建置沿革〈古 4790-26〉; 『咸鏡南道安邊都護府邑誌』, 建置沿革〈想白古 915.19-An19〉; 『安邊都護府邑誌』, 建置沿革〈奎 10987〉.

149) 본래 정약용은 『經世遺表』에서 전국 각읍을 州, 郡, 縣으로 재편할 때 호구와 전결의 합산 기준을 사용하였다. 이것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 종합정보”에서 수정한 방식을 따랐다. 『經世遺表』 卷3, 天官修制, 郡縣分隸.

은 함흥, 영흥 2읍뿐이고, 중읍도 안변, 경성, 길주, 회령, 북청 등 5읍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다수의 읍은 소읍과 극소읍에 해당한다. 앞서 호구는 평안도의 절반, 전 결은 평안도와 비슷한 양상이 확인되는데, 이는 비슷한 크기의 토지에 인구밀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읍과 극소읍 중 4읍을 제외하면 모두 都護府使[종3품] 이상의 목민관이 파견되었다.

고종대 『大典會通』를 살펴보면, 함경도 각읍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牧民官[親民官]은 종2품 府尹 1원[함흥],¹⁵⁰⁾ 정3품 大都護府使 1원[영흥],¹⁵¹⁾ 牧使 1원[길주], 都護府使 18원[安邊, 鏡城, 慶源, 會寧, 鐘城, 穩城, 慶興, 富寧, 北青, 德源, 定平, 甲山, 三水, 端川, 明川, 茂山, 長津, 厚州], 郡守 2원[문천, 고원], 縣監 2원[홍원, 이원] 등이 총 25읍에 임명되었고, 察訪 3원[고산, 거산, 수성]이 3개의 驛道를 관장하였다. 그중 안변, 종성, 경원, 회령, 종성, 온성, 경흥, 부령, 북청, 덕원, 정평, 갑산, 삼수, 단천, 명천, 무산, 장진, 후주 등 약 70%가 넘는 18읍이 종3품 都護府使가 임명되었다.¹⁵²⁾ 이는 군사도시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군사적 요충지에 파견된 동급의 僉節制使[종3품]가 縣事를 맡으면서 읍격이 상승되었기 때문이다.¹⁵³⁾ 특히, 〈표 13〉처럼 함경북도는 獨鎮(*)이 많아 읍의 규모가 작더라도 독립하였다. 따라서 고을의 크기보다는 군사적 중요도에 따라 읍의 지위가 좌우되었다.

150) 함경도 관찰사는 양계지역의 군사방어 목적으로 조선초부터 평안도와 함께 府尹을 겸직 하여 治所를 갖추었다(김백철, 2016a, 앞 책, 416면). 함흥은 쌍성수복후 知咸州事와 萬戶府가 잇달라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지녔으나, 태종대 府[府尹]로 觀察使本營을 설치하여 승격되었다. 또다시 李施愛의 亂이 일어나 성종대 관찰영을 永興으로 옮겼다가 중종대 비로소 함흥으로 복구되었다.

151) 영흥은 공민왕대 雙城摠管府 수복 이후 영흥은 和寧府에 이어 和寧府가 설치되었고 신왕조의 國號 2望에 오를 정도로 큰 고을이었다. '조선' 국호의 낙점은 (1)관행상 조선이 올린 一望을 인준해야 했고, (2)공민왕대부터 명에서 고려를 朝鮮으로 지칭하여 익숙하였으며, (3)鐵嶺衛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거점인 和寧를 국호로 인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종대 趙思義의 亂이 발발하여 영흥은 郡으로 강등되었다. 당시 安邊도 監務로 강등되었다. 『咸鏡南道安邊都護府邑誌』, 建置沿革<古 4790-26>; 『咸鏡南道安邊都護府邑誌』, 建置沿革<想白古 915.19-An19>; 『安邊都護府邑誌』, 建置沿革<奎 10987>.

152) 『大典會通』「吏典」外官職, 咸鏡道.

153) 都護府 명칭 자체도 漢-唐代 邊方 羈縻州로서 군사적 성격이 있으나 조선에서는 일반 군현명칭화되었다. 김백철, 2016a, 앞 책, 339-440면.

〈표 13〉 18세기 함경도 고을별 邑勢

읍명	戸口	田畝	소계	邑勢	東班職	西班職
安邊	6,216호	5,949결	12,165	中邑	都護府使[종3품]	僉節制使[종3품]
德源	2,080호	1,796결	3,876	極小邑	都護府使[종3품]	同僉節制使[종4품] /後營將[정3품]
咸興	11,700호	8,651결	20,351	大邑*	府尹[종2품] /觀察使[종2품]	兵馬節度使[종2품] /水軍節度使[정3품당상] **節制都尉[종6품](함흥관관)
永興	11,136호	9,088결	20,224	大邑	大都護府使[정3품]	僉節制使[종3품] /中營將[정3품]
鏡城	5,281호	4,743결	10,024	中邑	都護府使[종3품]	北道兵馬節度使[종2품] /北道水軍節度使[정3품당상] **南道左衛[정3품](경성관관) /**節制都尉[종6품](경성관관)
吉州	5,810호	5,375결	11,185	中邑	牧使[정3품]	僉節制使[종3품] /南道後衛將[정3품] **防禦使[종2품](성진첨사)
明川	5,268호	2,359결	7,627	小邑	都護府使[종3품]	同僉節制使[종4품] /南道右衛將[정3품]
會寧	5,596호	7,243결	12,839	中邑	都護府使[종3품]	僉節制使[종3품] /北道前衛將[정3품]
定平	2,840호	3,378결	6,218	小邑	都護府使[종3품]	同僉節制使[종4품]
高原	2,921호	1,908결	4,829	小邑	郡守[종4품]	同僉節制使[종4품]
文川	1,743호	1,539결	3,282	極小邑	郡守[종4품]	同僉節制使[종4품]
北青	6,932호	4,523결	11,455	中邑	都護府使[종3품]	僉節制使[종3품] **南道兵馬節度使[종2품] /**南道水軍節度使[정3품당상]
端川	3,900호	4,762결	8,662	小邑*	都護府使[종3품]	僉節制使[종3품] /別中營將[정3품]
利城	2,085호	1,407결	3,492	極小邑	縣監[종6품]	節制都尉[종6품]
洪原	3,284호	1,881결	5,165	小邑	縣監[종6품]	節制都尉[종6품] /前營將[정3품]
甲山	3,711호	3,160결	6,871	小邑*	都護府使[종3품]	僉節制使[종3품] /左營將[정3품]
三水	1,550호	2,303결	3,853	極小邑*	都護府使[종3품]	僉節制使[종3품] /右營將[정3품]
鍾城	4,268호	4,979결	9,247	小邑*	都護府使[종3품]	僉節制使[종3품] /北道左衛將[정3품]
穩城	1,985호	1,398결	3,383	極小邑*	都護府使[종3품]	僉節制使[종3품] /北道中衛將[정3품]

慶源	3,222호	4,670결	7,892	小邑*	都護府使[종3품]	僉節制使[종3품] /北道右衛將[정3품]
慶興	1,973호	2,082결	4,055	小邑*	都護府使[종3품]	僉節制使[종3품] /北道後衛將[정3품]
富寧	1,838호	2,099결	3,937	極小邑*	都護府使[종3품]	僉節制使[종3품] /南道前衛將[정3품]
茂山	3,428호	3,993결	7,421	小邑*	都護府使[종3품]	僉節制使[종3품] /南道中衛將[정3품]

- 전거: 호구 및 전답은 『여지도서』. 단, 牧民官의 軍職은 『대전회통』에 따라 수정 및 보완.
- * : 獨鎮 / ** : 목민관 비겸직 관직 / 순서: 남부→북부
- 呂勢: 戶口+田結 4천 미만 極小邑, 4천 이상~1만 미만 小邑, 1만 이상~2만 미만 中邑, 2만 이상 大邑

(2) 新定事例의 구성방식

고종대는 읍지 이외에 별도로 각 고을의 재정정보를 기록한 邑事例도 대거 편찬되었다. 그럼에도 각 고을의 재정은 비교적 규모가 큰 고을만 상세히 기록되었고, 작성방식도 相異하여서 당시에도 비교하여 살펴보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지방재정개혁이 절실했던 조정에서는 새로이 통일된 양식을 지방에 내려보내서 '新定事例'를 작성하도록 명하였다.¹⁵⁴⁾ 특히 함경도는 여타 도에 비해서 비교적 동일한 원칙하에 작성된 신정사례가 상당수 남아있다.

다음 몇 가지 자료가 대표적이다. 먼저, 『關北驛事例』(奎貴 12202)이다. 이 책 후반부에는 永興府의 改正新事例(光緒 9年/1883)가 실려있는데 여타 '신정사례'와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¹⁵⁵⁾ 다음으로, 『關北營誌』(奎 12191)이다. 이 책 후반부에는 咸鏡監營[함흥]의 新定事例가 실려있다.¹⁵⁶⁾ 마지막으로, 1894년 『關北邑誌』(奎 12179)이다. 가장 많은 정평, 흥원, 안변, 단천, 삼수, 갑산, 장진, 북청, 문천, 고원, 덕원, 함흥 등 12읍의 신정사례가 실려있다.¹⁵⁷⁾

154) 新定事例 전후 재정개혁은 다음 참조. 김태웅, 2012,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아카넷, 128-152면.

155) 곧 章程, 眞殿六名日祭祭物, 各祭享, 永興本宮, 璿源殿, 京各司納, 巡營納, 南兵營納, 北兵營納, 呂公下, 官廩, 册貯, 鄉廳, 武廳, 吏廳, 通引廳, 官奴廳, 使令廳, 呂屬, 結捧秩, 戶役捧入秩, 各處稅捧秩, 不恒下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있다.

156) 곧 翳耀啓, 营屬秩[中營屬秩·軍攢], 應捧秩, 進上秩, 京上納秩, 用下秩, 营貯, 幕貯, 中營, 不恒用下秩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그중 『관북읍지』의 사례를 대상으로 재정항목을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자료는 처음에 ‘章程’을 항목으로 설정하고 고을의 재정규칙을 규정하였고(안변, 북청), 소제목을 쓰지 않더라도 규정을 열거한 경우도 적지 않다(정평, 홍원, 단천, 삼수, 갑산, 장진, 문천, 덕원, 함흥). 이밖에 북청의 依甘辭追錄처럼 별도로 추가된 경우도 있다. 둘째, 고을의 전체 예산규모(총수입 또는 총지출)를 나타내는 항목이다. 대개 사례의 서두나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 元俸秩 내지 歲入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다. 셋째, 외부지출에 해당하는 ‘上納秩’이다. 여기에는 중앙뿐 아니라 같은 道 내에 상위기관에 바치는 내역도 들어있으며 소제목은 고을 별로 상이하다. 중앙에 보내는 進上, 京各司[京上納], 本道의 군비에 해당하는 巡營上納, 兵營上納, 北兵營納秩, 본도의 왕실사적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는 本宮上納[兩本宮享需], 德安陵, 璞源殿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넷째, 고을 내부의 공용비이다. 自邑公下[公用應下/邑公用秩] 등으로 표현되는 고을의 자체경비, 그리고 官廩으로 표현되는 관원의 廩給이 포함된다. 다섯째, 고을의 부대시설경비이다. 대개 祭享와 鄉校이 가장 많이 포함되고, 이밖에도 摬所, 站役給秩, 烽燧, 銀店 등이 읍에 따라 추가되었다. 여섯째, 고을 세부업무별 예산이다. ‘邑屬設料秩’(함흥)/‘設料秩’(안변)/‘設料’(북청)이나 ‘各班支放’(홍원)로 둑여있는 경우가 보인다.¹⁵⁸⁾ 대체로 고종중반 신정사례의 형식은 <부표 6>과 같이 작성연대, 제목양식, 재정규칙, 중앙 및 지방의 상납액, 총예산, 외부지출, 내부집행, 부대시설 운영비, 업무별예산, 부록 등의 순서로 점차 표준화되었다.

이러한 新定事例 중 錢文으로 환산된 합산가를 기준으로 중앙상납과 본도상납 비중을 살펴볼 수 있다. 함경도는 대체로 중앙 各司보다 본도의 巡營, 北兵營, 南兵營의 상납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른 도가 중앙상납비중이 높은 것과

157) 편찬연대가 확인가능한 경우는 光緒 9年(1833: 단천), 開國 503年(1894: 정평, 홍원, 북청, 문천, 함흥) 등이다. 또 명칭을 살펴보면, 新事例釐正冊(정평), 新式事例冊(홍원), 新定事例(안변, 단천, 북청), 改正事例(장진, 문천), 新事例冊(함흥) 등으로 나타난다.

158)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항목을 찾아보면, 鄉廳[鄉廳書員(廳)/鄉廳隨卒房], 鄉所, 將(校)廳, 吏廳, 刑吏廳, 作廳, 通引廳[通引房], 官奴廳[奴廳/官奴房], 使令廳[使令房], 破衛廳[砲軍廳], 摬所 등으로 고을의 행정기능별로 예산이 할당되었다.

대조적이다.¹⁵⁹⁾ 대동법이나 균역법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보인다.¹⁶⁰⁾ 중앙상납분은 흥원 21%를 제외하면 여타 고을에서는 0.8~8%에도 불과하다. 특히 삼수와 갑산처럼 최전방 기지성격이 강한 곳은 중앙상납 비중이 거의 없으며, 북청이나 함흥과 같이 병영과 순영이 설치된 곳은 해당항목이 本邑예산이므로 비중이 39~42%로 훨씬 높다. 이외에도 고을별로 本宮, 璿源殿, 王陵 등의 운영비나 祭享비용 등 道內 王室事跡 비용을 부담하는 액수도 적지 않았다.

〈표 14〉 함경남도 新定事例의 각읍 중앙과 본도 상납 비중

읍명	연도	구분	총수입	중앙	본도		
			元捧[歲入]	京上納	巡營納	北兵營納	(南)兵營納
安邊	(1894)	남도	59,198냥	4,557냥 (7%)	9,141냥 (15%)	350냥 (0.5%)	1,439냥 (2%)
德源	(1894)	남도	45,474냥	1,147냥 (2%)	4,432냥 (9%)	77냥 (0.1%)	726냥 (1%)
文川	1894	남도	21,660냥	1,193냥 (5%)	3,943냥 (18%)	81냥 (6%)	459냥 (2%)
高原	(1894)	남도	26,388냥	1,270냥 (4%)	3,752냥 (14%)	102냥 (0.3%)	712냥 (2%)
定平	1894	남도	31,709냥	2,847냥 (8%)	4,566냥 (14%)	861냥 (2%)	
咸興 [巡營]	1894	남도	98,308냥	5,858냥 (5%)	42,224냥 (42%)		155냥 (0.1%)
洪原	1894	남도	24,898냥	5,269냥 (21%)	5,116냥 (20%)		1,137냥 (4%)

159) 다른 도의 재정은 다음 참조. 권내현, 2004, 앞 책; 문광균, 2015, 『조선후기 경상도 재정운영 연구』, 충남대 국사학과 박사논문.

160) 한영국은 함경도의 대동법 실시는 확인되지만 운영방식은 상세하지 않다고 했다. 『여지도서』의 경우 '大同' 항목은 함흥만 확인되며, '均稅' 항목은 함흥, 영흥, 경성, 길주, 명천, 회령, 정평, 고원, 안변, 덕원, 북청, 단청, 이성, 온성, 경원, 경흥, 부령, 무산 등 주로 연안도시에서 보이며 稅目은 하나같이 鹽盆稅, 船稅, 簾稅 등으로 균역법상의 海稅만 해당되어 있다. 더욱이 『만기요람』에는 대동은 팔도의 세수에서 제외되어 있고, 미찬가지로 균역은 船稅만 보인다. 한영국, 1998, 「대동법의 시행」, 『한국사』 30, 국사편찬위원회, 496면; 『輿地圖書』, 咸鏡道: 『萬機要覽』, 財用編3, 大同作貢, 各道應捧·各道劃給(奎 1151); 『萬機要覽』, 財用編3, 海稅, 收稅式(奎 1151).

北青 [南兵營]	(1894)	남도	62,113냥[?]	4,824냥 (7%)	4,889냥 (7%)		<u>24,610냥</u> <u>(39%)</u>
端川	1833	남도	53,836냥	435냥 (0.8%)	8,806냥 (16%)	359냥 (0.6%)	3,433냥 (6%)
甲山	(1894)	남도	10,752냥		905냥 (8%)		437냥 (4%)
三水	(1894)	남도	6,887냥		473냥 (6%)		1,496냥 (21%)
長津	(1894)	남도	5,917냥	84냥 (1%)	2냥		2냥

- 전거: 『關北邑誌』(奎 12179) / 錢환산 합산가 기준(단, 兩 이상) / (): 추정

4. 맷음말

함경도는 오랫동안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여 奧地나 다름없었다. 지형을 살펴보면, 내륙은 동해안과 정비례해서 남서에서 북동으로 길게 함경산맥에 가로막혔고, 반대방향으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마천령산맥이, 북에 남으로 낭립산맥을 비롯한 험준한 산악지형이 가로막고 있다. 이 때문에 고을이 고르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초기에는 함흥평야를 중심으로 고을이 형성되어 점차 동해안연안을 따라 확장되었다. 여기에 압록강유역은 넓게 뻗은 개마고원에만 군현이 설치되었고, 두 만강유역은 동해안을 따라서 내륙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6진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군사거점이 확장되어 고을로 변모하면서 비로소 내륙까지 직접 관할하였다.

함경도 각 읍은 군사도시로 출발하였다. 군사요충지에 巨鎮이 설치되고 차차 방어영역을 세분화하여 諸鎮이 재배치되었다. 牧民官의 지위보다 軍職의 역할에 따라 재편되었다. 대부분의 고을이 都護府로 승격된 것도 겹직인 첨절제사의 鎮과 연동되었다. 함경도 전체는 크게 鎮營, 南道五衛, 北道五衛 등 3개 권역으로 작전 구역을 나누어서 방어하였다.

이러한 방어체계는 교통망에도 영향을 미쳐서 주요 군사거점에는 烽臺가 설치되어 변란에 대비하였다. 陸路는 남부 高山道, 중부 居山道, 북부 輸城道가 각각

긴밀한 驛路網을 형성하였다. 여기에 譯院[驛站]이나 撫所가 연동되어 발달하였다. 水路는 동해안연안, 압록강유역, 두만강유역 등을 중심으로 수로망이 갖추어졌다. 이는 군사거점과 자연경계가 함께 반영된 결과이다.

아울러 관방은 재정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토지의 양은 비슷한데 비해 인구밀도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조선후기까지 점진적으로 전결과 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서지방과 격차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관북의 세수는 일부 중앙상납분이 확인되고 있으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각읍 재정 대부분은 도내 방어체계를 구성하는 순영, 남병영, 북병영, 본읍 등의 군비에 사용되었고, 이외에 필수 고을의 운영비나 도내 왕실사적이나 제향비용에 활용되었다. 사실상 재정운영은 關防에 종속되는 구조였다.

오늘날 북한의 행정구역도 함경도를 강원도,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로 나누고 있는데, 강원도는 천리장성 인근, 양강도는 압록강 유역 개마고원 일대, 함경남도는 동해연안, 함경북도는 동해연안 및 두만강 유역 도시로 구획하여 전통시대 고을 형성사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군현의 발달은 자연히 關防체계 구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民政, 交通, 財政 등이 모두 이같은 흐름 속에서 연동되었다.

논문투고일(2017. 11. 10), 심사일(2017. 11. 20), 게재확정일(2017. 12. 4)

참고문헌

1. 자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三國史記』「地理志」, 『高麗史』「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 『遼史』「地理志」, 『金史』「地理志」, 『元史』「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奎貴 1932〉, 『輿地圖書』, 『增補文獻備考』「輿地考」, 『海東繹史』「地理考」, 『良役實摠』〈奎刊 12210〉·〈古 5127-4〉, 『戶口總數』〈奎 1602〉, 『賦役實摠』〈奎刊 252〉, 『大東地志』〈古 4790-37〉, 『萬機要覽』〈奎 1151〉, 『[關北]邑誌』〈奎 667〉, 『關北邑誌』〈奎 10995〉·〈奎 12179〉·〈想白古 915.19-G995〉, 『北關邑誌』〈奎 12170〉, 『北關誌』〈古 4790-18〉·〈奎 1261〉·〈한은 391〉, 『關北邑誌』〈장서각 귀K2-4215〉, 『咸鏡南道安邊都護府邑誌』〈古 4790-26〉, 『咸鏡南道安邊都護府邑誌』〈想白古 915.19-An19〉, 『安邊都護府邑誌』〈奎 10987〉, 『德源府邑誌』〈奎 17527〉, 『德源府邑誌』〈奎 10983〉, 『文川郡邑誌』〈奎 17530〉, 『文川郡邑誌』〈奎 10990〉, 『高原郡邑誌』〈奎 10984〉, 『永興府邑誌』〈奎 17528〉, 『永興郡邑誌』〈奎 10992〉, 『定平府邑誌』〈奎 17529〉, 『定平府邑誌』〈想白古 915.19-J466〉, 『定平郡邑誌』〈奎 10991〉, 『咸興志』〈奎 1314〉, 『咸鏡監營誌』〈想白古 915.19-H179〉, 『洪原郡地圖與邑誌』〈奎 10981〉, 『洪原郡邑誌』〈奎 17534〉, 『利原郡邑誌』〈奎 10978〉, 『利原縣邑誌』〈奎 17532〉, 『北青郡邑誌』〈奎 10979〉, 『北青邑誌』〈奎 17531〉, 『長津郡邑誌』〈奎 10980〉, 『端川郡誌』〈奎 10982〉, 『城津郡邑誌』〈奎 11002〉, 『吉州郡邑誌』〈奎 11003〉, 『甲山三水長津邑誌』〈奎 11003〉, 『甲山郡邑誌』〈奎 10988〉, 『三水府邑誌』〈奎 17533〉, 『三水郡邑誌』〈奎 10989〉, 『明川邑誌』〈奎 11004〉, 『明川郡邑誌合編』〈想白古 915.19-M992〉, 『鏡城郡邑誌』〈奎 10994〉, 『咸鏡北道茂山府邑誌』〈奎 17539〉, 『茂山郡邑誌』〈奎 10999〉, 『富寧府邑誌』〈奎 17538〉, 『富寧郡邑誌』〈奎 10997〉, 『會寧郡邑誌』〈奎 11001〉, 『會寧府邑誌』〈奎 17537〉, 『慶興府邑誌』〈奎 10993〉, 『慶興都護府邑誌』〈奎 17536〉, 『慶源府邑誌』〈奎 17535〉, 『慶源郡邑誌』〈奎 10996〉, 『穩城郡邑誌』〈奎 11000〉, 『穩城府邑誌贍書成冊』〈想白古 915.1519-On7〉, 『鍾城誌』〈經古 915.194-G425j〉, 『鍾城郡地圖與邑誌』〈奎 10998〉, 『八道地圖』, 『咸鏡北道』〈奎 10331〉·〈古 4709-23〉·〈古軸 4709-48〉, 『備邊司印方眼地圖』〈奎 12156〉, 『朝鮮八道地圖』〈古 4709-54〉, 『海東地圖』〈古代 4709-41〉·〈古 4709-61〉, 『輿地圖』〈古 4709-68〉, 『廣輿圖』〈古 4790-58〉, 『西北界圖』〈古 4709-89〉, 『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古軸 4709-22A〉; 『遼薊關防地圖』〈古大 4709-91〉, 『制勝方略』〈奎刊 132〉, 『北關遺蹟圖帖』(고려대학교 박물관소장), 『(康熙)鐵嶺縣志』, 『(民國)鐵嶺縣志』, 『(民國)鐵嶺縣志』, 『(民國)鐵嶺縣續志』, 『(民國)雙城縣志』, 『(民國)雙城縣鄉土志』.

2. 논저

- 장석화, 1997, 「조선후기 함경도의 친기위」, 『한국학보』 89, 일지사.
- _____, 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 의식」, 경세원.
- _____, 2005, 「조선후기 함경도 육진지역의 방어체계」,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고승희, 2005, 「조선후기 함경도 내지진보의 변화」,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권내현, 2004, 「조선후기 평안도 재정연구」, 지식산업사.
- 권영국, 2014, 「일제시기 식민사학자의 고려시대 동북면 국경·영토의식」, 『사학연구』 115, 한국사학회.
- 김백철, 2016a,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조선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이학사.
- _____, 2016b,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경인문화사.
- 김우철, 2000,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 김우철 역주, 2009, 『여지도서』 27-30, 흐름.
- 김호동, 2016,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 남의현, 2011, 「명청교체기 한반도 북방경계인식의 변화와 성격」, 『한일관계사연구』 39, 한일관계사학회.
- 노영구, 2004, 「조선후기 평안도지역 内地거점방어체계」, 『한국문화』 3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_____, 2005, 「조선후기 함경남도 幹線방어체계」,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_____, 2006, 「조선후기 開城府일대 關防體制의 정비와 財政의 추이」, 『한국문화』 3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문광균, 2015, 「조선후기 경상도 재정운영 연구」,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 민현구, 1968,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의 성립」, 『한국군제사: 근세조선 전기편』, 육군본부.
- 박성현, 2013, 「신라 군-성·촌제의 특징과 군현제로의 전환」, 『한국사연구』 163, 한국사연구회.
- 박원호, 2007, 「철령위 설치에 관한 새로운 관점」, 『한국사연구』 136, 한국사연구회.
- 박정애, 2014, 「조선시대 평안도 함경도 실경산수화」,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박종기 역주, 2016, 『고려사 지리지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
- 박종진, 2017, 「고려시기 지방제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 송용덕, 2005, 「고려전기 국경지역의 주진성 편제」, 『한국사론』 5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_____, 2009, 「고려후기 변경지역 변동과 압록강 연변의식의 형성」, 『역사학보』 201, 역사학회.
- _____, 2011, 「1107-1109년 고려의 葛懶甸지역 축성과 ‘윤관 9성’인식」, 『한국사학보』 43, 고려사학회.
- _____, 2012, 「고려의 일자명 기미주편제와 윤관의 축성」, 『한국중세사연구』 32, 한국중세사학회.
- 신안식, 2016, 「고려후기의 영토분쟁: 쌍성총관부와 동녕부를 중심으로」, 『군사』 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윤경진, 2000, 「고려 군현제의 구조와 운영」,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 _____, 2012, 「고려사 지리지의 분석과 보정」, 여유당.
- _____, 2015, 「고려후기 동북면의 지방제도 변화」, 『한국문화』 7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_____, 2016, 「고려 동북 9성의 범위와 공험진 입비 문제」, 『역사와 실학』 61, 역사실학회.
- 윤병무, 1958, 「길주성과 공험진: 공험진 입비문제의 재검토」, 『역사학보』 10, 역사학회.
- 육군본부 육군군사연구소 편, 2012a, 『한국군사사4: 고려 II』, 경인문화사.
- _____, 2012b, 『한국군사사5: 조선전기 I』, 경인문화사.
- _____, 2012c, 『한국군사사6: 조선전기 II』, 경인문화사.
- _____, 2012d, 『한국군사사7: 조선후기 I』, 경인문화사.
- _____, 2012e, 『한국군사사8: 조선후기 II』, 경인문화사.
- _____, 2012f, 『한국군사사11: 강역』, 경인문화사.
- 오수창, 2002,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 오종록, 2014, 「여밀선초 지방군제 연구」, 국학자료원.
- _____, 2014, 「조선초기 양계의 군사제도와 국방」, 국학자료원.
- 이상태, 2016, 「선춘령과 공험진의 위치 고찰에 관한 연구」, 『학림』 37, 연세사학연구회.
- 이선희, 2006, 「조선후기 황해도 水營의 운영」, 『한국문화』 3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이정신, 2004, 「쌍성총관부의 성립과 그 성격」, 『한국사학보』 18, 고려사학회.
- 이은주, 2016, 「평양을 담다: 역주 평양지, 평양속지」, 소명출판.
- 이정기, 2013, 「고려시기 동계 영역의 변동과 도호부의 이동」, 『한국민족문화』 4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_____, 2004, 「쌍성총관부의 설립과 그 성격」, 『한국사학보』 18, 고려사학회.

- 이철성, 2002, 「17세기 平安道 ‘江邊 7邑’의 방어체제」, 『한국사학보』 13, 고려사학회.
- 정구복 외 역주, 2012, 『역주 삼국사기3~4: 주석편 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 정석배, 2011, 「연해주발시기의 유적분포와 밀해의 동북지역 영역문제」, 『고구려발해 연구』 40, 고구려발해학회.
- 정요근, 2017, 「선춘령과 공험진은 두만강 이북에 있었는가?」, 『내일을여는역사』 66, 내일을여는역사.
- 정은정, 2016, 「고려말 동북면경계의 공간분절과 다층적 권력」, 『지역과 역사』 39, 부경역사연구소.
- 정해은, 2015, 「숙종초기 평안도의 변장증설과 방어체제의 변화」, 『사학연구』 120, 한국사학회.
- 차문섭, 1994,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 『한국사』 23, 국사편찬위원회.
- 최종택, 1998, 「조선초 평안 함길도의 지방세력」, 『동방학지』 9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최창국, 2009, 「追擊處와 邀擊處의 강역사적 의의: 15~16세기 북방 制勝方略과 고려 동북 9성을 중심으로」, 『군사』 73,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_____, 2013, 「조선전기 북방 양계지역 『제승방략』의 실체와 현대적 함의」, 『군사연구』 136, 육군 군사연구소.
- _____, 2017, 「선춘현과 공험진 위치 고찰: 『세종실록』「지리지」 및 고지도 답사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143, 육군군사연구소.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2004, 『아틀라스 한국사』, 사계절.
- 하명준, 2017, 『조선의 근대 전환과 평안도 연구』, 경인문화사.
- 한영국, 1998, 「대동법의 시행」, 『한국사』 30, 국사편찬위원회.

〈부표 1〉『制勝方略』의 함경도 6진·3읍 방어체계

六鎮大分軍		三邑分官	
先鋒將(虞候)		先鋒將(西北萬戶)	
右衛將 (穩城府使)	左部將(柔遠僉使), 中部將(府判官), 遊軍將(府軍官), 右部將(美錢僉使), 後部將(黃拓坡權官)	右衛將 (明川縣監)*	右部將(森森坡萬戶), 前部將(寶化堡權官), 中部將(斜尗洞權官), 遊軍將(縣軍官), 右部將(甫老知權官), 後部將(朱乙溫萬戶)
前衛將 (鍾城府使)	左部將(潼關僉使), 前部將(防垣萬戶), 中部將(府判官), 遊軍將(府軍官), 右部將(細川權官), 後部將(府軍官)	大將	
大將 (節度使)		中衛將 (吉州牧使)*	左部將(德萬洞權官), 前部將(州軍官), 中部將(斜下北權官), 遊軍將(州軍官), 右部將(州軍官), 後部將(將軍坡萬戶)
中衛將 (會寧府使)	左部將(豐山萬戶), 前部將(府軍官), 中部將(府判官), 遊軍將(府軍官), 左部將(甫乙下僉使), 後部將(府軍官)	左衛將 (富寧府使)*	左部將(梁永權官), 前部將(玉連萬戶), 中部將(茂山萬戶), 遊軍將(府軍官), 右部將(魚游澗萬戶), 後部將(吾村權管)
後衛將 (富寧府使) *	左部將(梁永權官), 前部將(玉連萬戶), 中部將(茂山萬戶), 遊軍將(府軍官), 右部將(府軍官), 後部將(府軍官)	捍後將(營軍官), 繼援將(鏡城判官), 斬退將(州軍官), 左突擊將(營軍官), 右突擊將(營軍官)	
左衛將 (慶源府使)	左部將(訓戎僉使), 前部將(安原權官), 中部將(府判官), 遊軍將(府軍官), 右部將(乾元權官), 後部將(阿山萬戶)		
捍後將(高嶺僉使), 監司, 一繼援將(鏡城判官), 二繼援將(明川縣監)*, 三繼援將(吉州牧使)*, 斬退將(營軍官), 左突擊將(營軍官), 右突擊將(營軍官), 別都將(慶興府使), 軜重將(輸城察訪)			

〈부표 2〉 18세기 함경도 驛站 인력 규모

읍명	역명	察訪	(驛)吏	站吏	奴	婢	田고
安邊	高山驛		274		675	386	高山道
安邊	南山驛		148		587	341	高山道
安邊	奉龍驛		74		633	405	高山道
安邊	朔安驛		40		95	53	高山道
安邊	火燈驛		36		42	24	高山道
德源	鐵關驛		9		48	74	高山道
文川	良驛(驛)		600				高山道
高原	通達驛		459				高山道

고원	隘守驛		313				高山道
定平	草原驛	1	843	1,172	289	208	高山道
定平	蓬臺驛		267	444	562	412	高山道
咸興	平原驛				106	61	高山道
咸興	德山驛				207	118	高山道
洪原	咸原驛		315		155	72	居山道
洪原	新恩驛		683		302	183	居山道
洪原	平浦驛		400		272	196	居山道
北青	五川驛		280		351	279	居山道
北青	居山驛	(1)	310		280	130	居山道
北青	鞅航驛		57		183	97	居山道
北青	濟人驛		48		189	121	居山道
北青	黃水驛		8		72	62	居山道
利城	施利驛		1,271				居山道
利城	谷口驛		2,394				居山道
端川	基原站		419		621	268	居山道
端川	磨谷站		545		315	261	居山道
吉州	雄平驛		169		312	132	居山道
吉州	臨溟驛		310		270	150	居山道
吉州	嶺東驛		210		340	150	居山道
明川	明原站		426		400	241	居山道
明川	古站		432		297	153	居山道
甲山	終浦驛		150				居山道
甲山	熊耳驛		100				居山道
甲山	呼豨驛		60				居山道
甲山	虛川驛		113				居山道
甲山	虛豨驛		25				居山道
甲山	惠山驛		50				居山道
三水	積生驛		13		60	49	居山道
富寧	石堡驛		619		168	116	輸城道
富寧	懷綏驛		1,501		135	196	輸城道
茂山	邑站		172		23	12	輸城道
茂山	麻田站		196		13	15	輸城道
茂山	豐山站		188		20	21	輸城道
會寧	寧安站		201		70	52	輸城道
會寧	古豐山站		348		35	19	輸城道
會寧	櫟山站		1,409		63	70	輸城道

鍾城	鍾慶驛		201		55	70	輸城道
鍾城	撫安驛		345		25	17	輸城道
鍾城	鹿野驛		458		47	20	輸城道
穩城	撫寧驛		210		32	24	輸城道
穩城	德明驛		1,347		15	6	輸城道
慶源	馬乳驛		194		40	16	輸城道
慶源	燕基驛		959		31	20	輸城道
慶源	阿山驛		363		11	12	輸城道
慶興	江陽驛		169		25	24	輸城道
慶興	雄撫驛		355		45	25	輸城道
鏡城	輸城驛	(1)	289		61	35	輸城道
鏡城	吾村驛		319		68	42	輸城道
鏡城	永康驛		270		55	28	輸城道
鏡城	朱村驛		355		57	30	輸城道
소계			38,191				

-전거:『여지도서』

〈부표 3〉 18세기 함경도 摨所의 인력 규모

읍명	撥所名	(撥)將	(撥)卒[軍]	비고
安邊	高山撥所	1	10	高山道
安邊	引豆門撥所	1	10	高山道
安邊	方下山撥所	1	10	高山道
德源	土橋撥所	3	15	高山道
文川	郡內社撥所	12	50 *	高山道
高原	通達撥所	6	30	高山道
永興	和原擺撥	1	30	高山道
定平	北撥	3	30	高山道
定平	南撥	3	30	高山道
咸興	平原擺撥		5 *	高山道
咸興	德山擺撥		5 *	高山道
洪原	新翼社邑撥所	3	15	居山道
洪原	龍源社大門撥所	3	15	居山道
北青	五川撥所	1	5	居山道
北青	大峴撥所	1	5	居山道
北青	舊院臺撥所	1	5	居山道
北青	濟人撥所	1	3	居山道

北青	黃水撥所	1	3	居山道
利城	施利撥所	40	200	居山道
利城	谷口撥所	40	200	居山道
利城	羅下撥所	40	200	居山道
端川	基原撥	12	137	居山道
端川	磨谷撥	12	137	居山道
吉州	雄坪撥所	2	189	居山道
吉州	山城撥所	2	189	居山道
吉州	臨溟撥所	2	189	居山道
吉州	嶺東撥所	2	259	居山道
明川	明原撥所	72	640	居山道
甲山	邑社撥所	1	546	居山道
甲山	呼猶社撥所	1	308	居山道
甲山	熊耳社撥所	1	308	居山道
甲山	終浦社撥所	1	308	居山道
甲山	虛彌社朱禮撥所	1	308	居山道
三水	官門撥所	6	5*	居山道
富寧	獐項撥	1	5	輸城道
富寧	官門撥	1	5	輸城道
富寧	虛古院撥	1	5	輸城道
富寧	廢茂山撥	1	3	輸城道
茂山	邑撥所	2	8	輸城道
茂山	麻田撥所	2	8	輸城道
茂山	梁永撥所	2	6	輸城道
茂山	孔巖撥所	2	6	輸城道
茂山	豐山撥所	2	6	輸城道
會寧	寧安撥所	12	372	輸城道
會寧	獨德撥所	12	248	輸城道
會寧	高嶺鎮撥所	6	339	輸城道
會寧	甫乙下鎮撥所	10	298	輸城道
會寧	古豐山堡撥所	4	248	輸城道
鍾城	邑撥所	1	5 *	輸城道
鍾城	漁關撥所	1	5 *	輸城道
鍾城	防垣撥所	1	5 *	輸城道
鍾城	撫安撥所	1	5 *	輸城道
鍾城	鷺巖撥所	1	5 *	輸城道
穩城	官門撥所	6	255**	輸城道

穩城	永達站撥所	2	255**	輸城道
穩城	黃拓坡站撥所	2	255**	輸城道
穩城	德明站撥所	6	175**	輸城道
慶源	訓戎撥所	5	268	輸城道
慶源	官門站	8	556	輸城道
慶源	安原站	6	337	輸城道
慶源	燕基站	7	377	輸城道
慶源	乾原站	6	342	輸城道
慶源	阿山站	5	332	輸城道
慶興	邑撥站	1	5	輸城道
慶興	阿吾地撥站	1	5	輸城道
	소계	395	9,143	
	합계		9,538	

-전거: 『여지도서』 / * : 民戶의 輪番入直 / **: 5명씩 교대 근무

〈부표 4〉 18세기 봉대의 규모와 구성인원

읍명	烽臺名	烽武士[軍兵]	구성인원	항목
安邊	미상	400		軍兵
高原	미상	1**	烽武士別將 1	軍兵
咸興	執三味烽燧	100*		烽燧
	倉嶺烽燧	100*		烽燧
	草串嶺烽燧	100*		烽燧
	城串山烽燧	100*		烽燧
茂山	미상	220	別將 1, 百摠 2, 武士 200, 書記 1, 烽軍 16	軍兵
利城	미상	200*		軍兵
端川	미상	709	別將 1, 標下軍 8, 烽武士 700	烽燧
	梨洞堡烽燧	22	別將 1, 烽武士 21	梨洞堡烽燧
吉州	미상	503	別將 1, 監官 100, 武士 300, 汎直 100, 隨率 2	軍兵
	西北鎮	47	別將 1, 監官 9, 武士 37	軍兵
	城津鎮	133	別將 1, 監官 26, 武士 106	軍兵

明川	三處蜂燧	346	別將 1, 監官 60, 武士 240, 樵汲軍 42, 隨率 3	三處蜂燧所
富寧	미상	1**	烽燧別將 1	軍兵
穩城	미상	120		軍兵
會寧	미상	620	百摠 6, 烽監 120, 武士 360, 淘直 120, 色吏 6, 隨率 8	烽燧

-전거: 『여지도서』 / 기준: 인원수가 명기된 고을만 도표화

-*: 輪番 근무 / ** '軍兵' 항목에서 봉무사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부표 5〉 영조대 함경도 21읍 및 각營 군액

읍명	군액	읍명	군액	각營	군액
갑산	1,760	부령	2,516	감영(합흥)	12,026
경성(북병영)	1,006	북청(남병영)	5,833	남병영(북청)	22,333
경원	4,436	삼수	1,048	북병영(경성)	5,355
경흥	4,884	영흥	4,888	행영(종성)	9,175
고원	1,643	안변	3,640		
길주(방어영)	9,679	온성	3,362		
단천	7,006	이성	3,982		
덕원	987	정평	2,664		
명천	4,928	종성(행영)	4,578		
무산	3,461	회령	5,581		
문천	984				
21읍 군액	78,866			각영 군액	48,889

- 전거: 『輿地圖書』'咸鏡道'의 '軍兵'

〈부표 6〉 1894년 『關北邑誌』(奎 12179)의 新定事例 구성방식

읍명	연도	제목	재정규칙	총예산	외부지출	내부집행	부대시설	업무별예산	부록
定平	開國 503년 (1894)	新事 例釐 正冊	⑦[章程]	⑤元俸秩	⑤上納秩[進 上, 京各司, 巡營上納, 兵營上納, 本宮上納, 德安陵, 璿源殿]	⑥自邑公 下, ⑦各樣公 下, 官廩	⑧祭享, ⑨鄉校	⑩鄉廳, 武廳, 訓練廳, 吏廳, 刑吏廳, 通引廳, 官奴廳, 使令廳, 砲衛廳	⑪甲申三 月日追錄
洪原	開國 503년 (1894)	新式 事例 冊	⑦[章程]	⑤戶摠, 田摠 ⑥歲入	⑤京上納, 巡營納, 兵營納	⑥官廩, 邑上下秩	⑧歲下 [各祭享]	⑩各班支放	
安邊			⑦章程	⑥歲入秩	⑤京上納秩, 巡營納秩, 北兵營納秩, 兵營納秩	⑥官廩, ⑦邑公用 秩	⑧春秋各祭享 秩 ⑨三撥所, 五站役給秩, 四處烽燧	⑩設料秩[鄉廳, 鄉所, 武各廳, 作廳, 通引廳, 官奴廳, 使令廳, 砲軍廳]	⑪追付事 例
端川	光緒 9년 (1833)	新定 事例	⑦[章程]	⑥歲入, 式年用下 , 不恒例	⑤京上納, 巡營納, 兵營納, 北兵營納		⑧鄉校, 兩銀店	⑩鄉廳, 大同都監, 禮房鄉所, 將廳, 左兵房, 新砲兵房, 捕兵房, 作廳, 通引廳, 官奴廳, 軍牢廳, 使令廳, 撥所	
三水			⑦[章程]	⑥歲入, 隨時秩	⑧巡營納, 兵營納	⑥官廩, ⑦公用應 下, 支放上下	⑧鄉校 ⑨各祭享物種 所封, ⑩別砲新砲衛 料秩, 各鎮將料秩	⑩鄉廳, 將廳, 吏廳, 刑吏廳, 通引廳, 鄉廳書員, 使令廳, 官奴廳	
甲山			⑦[章程]	⑥歲入	⑧巡營納, 兵營納	⑥官廩, ⑦祭享各 種所封 ⑧公用應 下, 支放上下	⑧鄉校	⑩鄉廳, 將廳, 軍官廳, 執事廳, 砲衛廳, 親騎衛廳, 吏廳, 刑所, 通引廳, 官奴廳, 教坊, 使令廳, 軍土廳 ⑪撥料秩	
長津		改正 事例	⑦[章程]	⑥歲入, 隨時上下	⑤進上, 京司納, 巡營納, 兵營納	⑤本官 ⑥各樣應 下	⑧鄉校, 西需 ⑨社稷祭兩次, 釋奠祭兩次, 城隍祭三次,	⑩鄉廳, 將廳, 吏廳, 通引廳, 使令廳	

							厲祭三次, 蠶神祭兩次 ⑧各站都家直		
北青	開國 503年 (1894)	新定 事例	⑦章程, 依甘辭追 錄	⑥歲奉秩 不恒下, 間年上下, 式年上下	⑦進貢, 京司納 ⑧巡營納, ⑨兵營, 营吏, 進貢及祭享	⑩本府官 廩, 邑下, 邸吏	⑪各祭享[義 陵節享祭需, 義陵各樣所入 新定式, 祭享時祭官供 饋秩, 間一年上下秩 四年一次上 下秩, 五年一次上 下秩, 隨時修補秩]	⑫設料[鄉廳, 將校廳, 軍器庫, 府司, 吏廳, 通引, 官奴房, 使令房, 鄉廳書員廳, 撥所, 各料]	⑬追事例
文川	開國 503年 (1894)	改定 事例	⑦[章程]	⑧歲入, 歲下, 不恒上下	⑨進上, 京司上納, 巡營納, 兵營納, 北兵營納, 咸興永興兩本 宮納	⑩自邑公 用, 官廩	⑪各祭享 ⑫祿陵 ⑬鄉校	⑭鄉廳 ⑮將廳, 作廳, 通引廳, 官奴廳, 使令廳	
高原		改定 事例 成冊		⑪一年應 下都數, 隨時上下	⑫京上納, 巡營納, 兵營納, 北兵營納, 京各司禮木筆 債	⑬官廩, ⑭各樣應 下	⑮釋奠祭兩次 社稷祭兩次, 發告祭三次, 厲祭三次	⑯鄉廳, 將廳, 吏廳, 通引, 官奴廳, 使令廳	
德源			⑦[章程]	⑧歲入, 歲下, 不恒上下	⑨進貢 ⑩京上納, 巡營納, 兩本宮享需, 兵營納, 北兵營納	⑪自邑公 用, ⑫官廩, 幕料, 京邸吏	⑬春秋釋奠祭, 春秋社稷祭, 厲祭城隍祭無 祀鬼祭, 蠶祭, 慶安伯春秋 祭享 ⑭鐵關站, 雇馬庫	⑮鄉廳, 武各廳, 吏廳, 通引廳, 官奴廳, 使令廳, 砲衛廳, 撥所, 辦察所	
咸興	開國 503年 (1894)	新事 例冊	⑦[章程]	⑮各衙門 會付還摠 結戶排斂 秩 ⑯都分類 「歲入, 歲下, 不恒下」	⑰進貢秩, 巡營納, 兵營納	⑱官廩 ⑲邑下恒 式, 不恒式, 不恒未酌 定秩	⑳中嶺堡, 赴戰嶺堡	㉑邑屬設料秩 [鄉廳, 將廳, 吏廳, 通引房, 奴廳, 典禮廳, 鄉廳隨卒房, 各廳直各庫文書 直匠色並, 校奴房]	

- ①~⑯ : 본래 사례의 수록 순서 표시.

〈부표 7〉 고종대 23府制와 13道制

갑오개혁기 23府制(1895.05.)		대한제국기 13道制(1896.08.)				
府	郡	道	1等郡	2等郡	3等郡	4等郡
咸興府 (11郡)	咸興郡, 定平郡, 永興郡, 高原郡, 文川郡, 德原郡, 安邊郡, 端川郡, 利原郡, 北青郡, 洪原郡	咸鏡北道 (10郡)	慶興郡	吉州郡	會寧郡, 鍾城郡	鏡城郡, 慶源郡, 穩城郡, 富寧郡, 明川郡, 茂山郡
甲山府 (2郡)	甲山郡, 三水郡					
鏡城府 (10郡)	鏡城郡, 富寧郡, 吉州郡, 明川郡, 慶源郡, 慶興郡, 穩城郡, 鍾城郡, 會寧郡, 茂山郡	咸鏡南道 (14郡)	德源郡	咸興郡, 端川郡, 永興郡	北青郡, 安邊郡, 定平郡	三水郡, 甲山郡, 長津郡 利原郡, 文川郡, 高原郡, 洪原郡

Abstract

An Essay on the Local History of Hamgyong Province in th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the Geography Books of the Kyujanggak Collection –

Kim, Paek-chol

Hamgyong Province has been recognized as an old territory since the dawn of history. However, it has not been a long-standing territory. There is a record of the Northeast Nine Castles built by General *Yun Gwan*(尹瓘) in the reign of King Yejong(睿宗), in the Goryeo dynasty. But the northern territory was very volatile. *Donggye*(東界) district of the Goryeo dynasty was a long stretch on the East Sea coast. The frontline area, which has secured stable security, was only part of the southern part of Hamgyong Province and the northern part of Gangwon province. Since the King Gongmin(恭愍王) attacked the *Ssangseong*(雙城), the policy, which is an expedition to conquer the north, has been implemented. Hamgyong Province became an independent for the first time at the reign of King Gongyang(恭讓王). In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court took control of the valley of Yalu River(鴨綠江) and Tumen River(豆滿江).

Hamgyong Province's main condition can be divided into several parts. First, military defense system. The town of Hamgyong also started as a military city. Three defense areas, including *Yeongjang*(營將) and *Nambuk Owi*(南北五衛), were set up. Second, traffic networks. Overland traffic has established close contact with each other in the *Gosando*(高山道) of southern part, the *Geosando*(居山道) of central part, the *Suseongdo*(輸城道) of northern part. Waterborne traffic developed into the East Sea coast, and the valley of Yalu River and Tumen River. Third, fiscal operations. The tax revenues of Hamgyong Province were used mostly in arms which were comprised of the cost of supreme commander station(巡營), southern commander station(南兵營), northern commander station(北兵營),

etc. In addition, it was used in the essential operating costs of each town.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each town was closely related to building defensive systems. And all of Hamgyong Province's administration, transportation, finance were working in the flow.

Key words : King Gongmin(恭愍王), Yalu River(鴨綠江), Tumen River(豆滿江), East Sea(東海), *Yeongjang*(營將), *Nambuk Owi*(南北五衛), military defense system(關防), overland traffic(陸路), waterborne traffic(水路), fiscal operations(재정운영), *Sinjeong Sarye*(新定事例)